

칠레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2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3
2. 주요 산업 동향 /6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8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0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2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14
대한수입규제동향 /16
관세제도 /16
주요인증제도 /18
지적재산권 /19
통관운송 /2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6
- 외국기업 투자동향 /28
- 우리기업 투자동향 /3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2
- 진출형태별 절차 /36
- 투자입지여건 /4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2
- 조세제도 /4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48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49
- 2. 물가정보 /50
- 3. 바이어발굴 /52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54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57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57
- 7. 이주정착 가이드 /58
- 8. 출장가이드 /61



1992 MAGELLAN GeographixSMS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칠레공화국 (Republica de Chile)
위치	남미, 태평양 연안
면적	약 757,000 km ² (한반도 면적의 3.4배, 남한면적의 7.7배) /(남극령 포함시 약 2백만km ²)
국토길이	약 4,270 km
기후	북부(사막기후), 중부(지중해성 사막기후) 남부(온대성 한랭기후)
수도	산티아고 (Santiago)
인구	16,763,470 명 (* 통계청 2008년 인구 전망치 기준)
주요도시	산티아고(600만 명), 발빠라이소(154만 명) 등
민족(인종)	메스티조(66%), 백인(29%), 인디오(5%)
언어	스페인어
종교	카톨릭(85%), 개신교(10%)
건국(독립)일	1810년9월18일, 스페인으로부터 자치정부 수립선언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임기 4년, 연임불가, 중임가능)
국가원수(실권자)	Michele Bachelet 대통령
입법부	상, 하원 양원제
정당	여당 - 여당연합(PDC, PPD, PS, PRSD) 야당 - 야당연합(RN, UDI)
정부성향	중도좌파

자료원: 칠레 통계청(주요도시 인구: 2002년 인구센서스 기준, 차기 인구센서스는 2012년 예정)

나. 한-칠레관계

체결협정	통상협정('77 서명), 항공협정('79 서명), 경제기술협력협정 ('83 발효), 과학기술협력협정('94서명), 투자보장협정('99.9.15발효), 이종과세방지협정(2003.7.25발효), 한.칠레 FTA타결(2002.10.25), 한. 칠레 FTA 정식 발효(2004.4.1)
교역품	자동차, 전자제품, 디젤오일(수출), 구리, 목재, 수산물(수입)
교민	약2,000명의 교민 중 80% 이상이 산티아고시 Patronato 지역 또는 Estacion Central 지역에서 의류/직물, 약세서리, 잡화류 도소매업과 봉제공장 등을 운영

자료원: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 바첼렛 대통령, 돌아선 민심 수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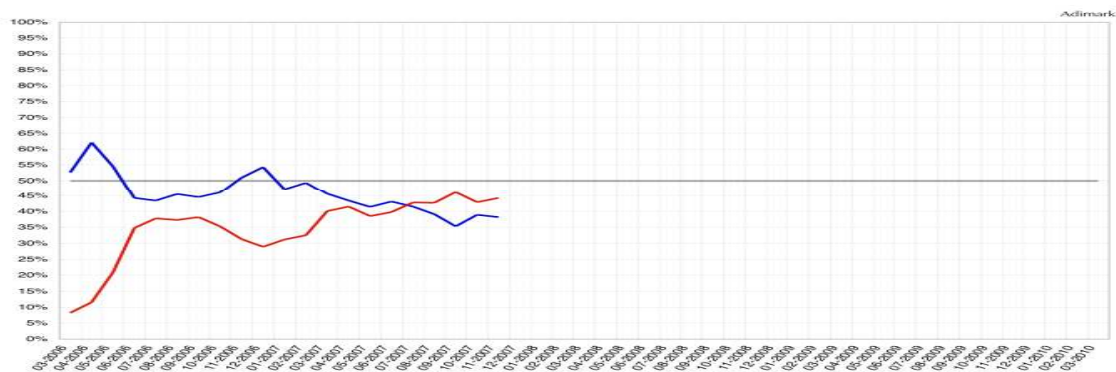
중남미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 당시 지지율 50%가 넘는 인기를 누렸던 바첼렛 대통령은 올해 들어 급격한 지지율 하락, 반대율 상승으로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당 중심의 집권 연립여당인 중도좌파연합(Concertacion)의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첼렛 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치게 한 주범은 2007년 2월 ‘선진교통시스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산티아고 교통망 개선프로젝트, ‘트란산티아고(TranSantiago)’이다.

지하철-버스요금 징수시스템 일원화,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 친환경 굴절 버스 도입 및 노후 버스 교체, 버스 노선 단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후 버스 운행 감시 시스템의 부재, 오작동, 버스 부족 현상 등의 문제가 불거져나오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샀으며 교통부 장관까지 교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12월 현재 아직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광산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불명확한 대처, 치솟는 물가, 범죄율 증가 등 바첼렛 정권의 행정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바첼렛 대통령 지지도



주: 청색선- 지지율, 적색선- 반대율

자료원: Adimark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디젤수입 급증

칠레는 천연가스 부족 사태로 최근 전력위기를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천연가스 생산감소 및 한파로 인한 국내 가스 수요 증가로 칠레에 대한 가스 공급을 양국간 협의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가스 부족으로 산업용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비상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거나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금년 우리나라의 대 칠레 디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300% 증가하였다(9 월 기준).

□ 자원 협력 노력 필요

FTA 체결 이후 양국간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교역분야는 외연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으로, 구리는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입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품목으로 적극적인 투자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칠레 광업분야에 꾸준히 투자하여 일부 광산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광산업체들과의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투자진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경우도 Minmetal 의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 칠레 광산업계에 큰 손으로 부상하는 등 칠레 광산업계에서의 일본, 중국의 위상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업체에 귀감이 될 만한 부분이다.

□ 한-중-일 FTA 시대, 치열한 경쟁 예상

2006 년 10 월 중-칠레 FTA 가 발효된 데 이어 일본도 2007 년 9 월부로 칠레와 FTA 가 발효되는 등, 아시아 국가 중 칠레의 첫 FTA 상대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누린 상대적 프리미엄이 약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이 자동차, 타이어 등 우리나라의 대 칠레 주력 수출 품목과 유사하여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거시경제 지표

구 분	2005년	2006년(잠정)	2007년(전망)
GDP 성장률(%)	6.3	4.4	5.9
소비자물가상승률(%)	3.7	2.9	5.8
총인구 (천명)	16,267	16,432	16,453
1인당국민소득 (US\$)	7,089	8,903	9,698
실업률(%연평균)	9.3	8.2	7.5
수출 (US\$ FOB)	395억	559억	634억(11월)
수입 (US\$ CIF)	303억	348억	400억(11월)
무역수지 (US\$)	92.3억	211억	234억
외환보유고(US\$)	169 억	194 억	162억(11월)
외채(US\$)	449 억	476 억	521억(11월)
대미불환율(연평균 1불당)	560	531	494.6(12월)
국제구리가(US\$/파운드)	1.63	3.01	3.16(11월)

자료원: 칠레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IMF 전망치

나. 주요 경제정책

칠레는 1990년도부터 중도 좌파의 집권이 계속되고 있으나, 경제 정책은 피노체트 정권 시절 다져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칠레는 광물(구리)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구리가격에 세수가 민감하게 변동하는데, 라고스 정권부터 구리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1% 구조적 흑자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매년 구조적으로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흑자로 남겨두었다가 구리가격이 하락하여 세입이 줄어든 때의 보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중장기적 재정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칠레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칠레 경제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혁신 분야 장려 등을 골자로 하는 Chile Emprende Contigo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조세제도 단순화, 법인세 체납이자 감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개폐업 절차 간소화, 정부 구매 대금 결제 기간 단축 등의 기업환경 개선안과 I+D (Innovation&Development) 분야 민간 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신기술 도입 인센티브 지원 등 기술혁신 장려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여 프로그램에 내실이 없다는 기업계의 비판이 높다.

다. 2007년도 칠레 경제현황

1) 5%대 경제성장 이룰 듯

당초 칠레 경제기관 및 전문가들은 2007년 경제성장률을 5% 선으로 예측하였으나, 상반기 종료 후 경제성장 전망치를 5.9%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연말까지는 6%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들의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는 불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가 금년 3분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1% 하락하여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도 중앙은행에서 연초에 전망한 3.0%를 2배 이상 초과하여 10월 기준으로 상승률이 약 6%에 육박하며, 특히 전기요금(25.8%), 빵(22.4%), 식당세트메뉴(12.9%), 교육비(5.6%) 등 생활과 직결된 항목들의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주요 교역국인 미국 경기 둔화, 물가상승과 폐소화 강제 등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칠레 경기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 노동시장 - 하반기 들어 실업률 소폭 증가, 전년 대비 하락 예상

8월 기준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기(7.4%)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칠레는 동절기에 해당하는 6~8월에 연평균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편이며 9월부터 실업률이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금년 들어서는 4분기에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평균 실업률은 7%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8% 이상을 기록한 전년대비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교역

당초 전문가들은 2007년 평균 구리가격이 파운드당 US\$2.5선으로 2006년 평균 가격인 파운드 당 US\$3.0 대비 하락, 칠레의 총수출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중국발 원자재 수요 증가의 여파로 올해도 구리가격 강세가 지속되어 연 평균 가격은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파운드 당 US\$3.2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발 부동산 시장 위기로 건설용 목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현지 목재 가공업체들이 수출 난관에 봉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밖에 폐소화 강세로 수출업체들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7년 9월 1일부터 일본과의 FTA가 발효되어 양국간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칠레의 주요 교역국 중 일본은 칠레의 3대 수출대상국, 8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되는 주요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회원국, 중국 등 칠레와의 FTA 기체 결국 대비, 불리한 조건으로 교역하고 있었으나 금번 FTA 발효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FTA 발효로 특히 자동차, 타이어 품목의 경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환율

2007년 12월 7일 현재 미화 1불당 폐소화 환율은 496.99(은행간 거래환율)이다. 연초 예상 평균환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28이었으나, 칠레도 글로벌 달러 약세의 영향권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라. 2008년도 칠레 경제 여건

2008년에도 주력 수출품인 구리 등의 원자재가 강세 현상이 지속되어 수출흑자, 재정수입 확대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 수출로 유입된 자금은 광산업체의 설비투자,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새로이 투입되어 경기 부양효과를 유발하며, 정부의 세수 확대에 공공정책 등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에너지 수입국인 칠레 경제에 그늘을 드리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되어 근래 심화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일방적인 가스 공급 감축, 중단 현상이 내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산업분야에 대한 전력공급 불안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가스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디젤 등을 이용한 비상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전력단가 상승, 일부 제조업체 공장가동 일시 중단 사태 등 금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수요가 높은 광산업체, 제조업체 등의 에너지 원가가 상승,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 주요 산업 동향

중앙은행의 업종 분류에 따른 칠레의 GDP구성은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나, 17% 선에 불과하며 칠레의 제조업은 대부분 제재목/펄프, 어분, 식료품 등 원자재 및 1차 생산물의 가공, 플라스틱(주로 포장 용기) 제품 가공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은 완제품형태로 수입한다.

이외에 금융업이 발달하여 세계 주요 은행 및 보험사 등이 칠레에 많이 진출해 있다. 또한 칠레는 세계 구리 생산 1위 국가로, 전통적으로 광업의 비중이 높으며, 사무실, 주택 등 건축물을 비롯하여 도로 신설/개선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건설 및 부동산 분야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칠레는 1차 생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리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

다음은 각 산업분야가 칠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단, 아래 GDP 구성은 해당 산업 종사자의 수입 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각 산업이 칠레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칠레 GDP 구성

(2006년 말 기준)

순 위	분 야	비 중
1	제조업	17.41%
2	금융업	16.68%
3	일반서비스업	11.49%
4	상업.호텔.식당	10.65%
5	운송.통신	9.97%
6	광업	7.93%
7	건설	7.44%
8	부동산	5.78%
9	공공행정	4.30%
10	농림축산업	4.01%
11	전기.가스.수도	3.04%
12	어업	1.29%

자료원: 칠레중앙은행

가. 광업

광업이 칠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정도에 불과하지만, 광산업과 관련된 전력, 수도, 제조, 운송업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칠레는 구리를 비롯한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치/경제 체제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어 광산업은 칠레에서 외국자본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이다. 광물은 크게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연료로 구분되며, 금속광물은 주로 대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비금속광물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 의해 생산·가공된다. 칠레 구리협회(Cochilco)에 의하면, 칠레는 구리, 요오드, 리튬, 레늄, 초산 염에 있어 세계 제일의 생산국이며, 몰리브덴은 두 번째 생산국이다. 칠레에서 생산되는 연료자원으로는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있으나, 이는 세계 총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원료 자원의 순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업

칠레는 당도 높은 과일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높은 일조량, 북반구 선진국과의 계절적 차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매년 과일 수출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을 높여주고 있다. 임업자원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칠레의 전략 산업으로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조림 및 목재가공업이 발달하였다.

다만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위축,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목재수요가 줄면서 임업 및 임산물 가공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다. 수산업

칠레 수산업은 국가 총 수출의 약 10%를 담당하는 주요 산업으로, 연어류 양식 세계 2위, 조업 세계 3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 유통업

칠레의 유통시장은 크게 슈퍼마켓(하이퍼마켓, 중소형 슈퍼마켓), 백화점, 전문점(홈 센터, 약국, 안경점 등), 대형 쇼핑몰 등의 4개 형태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시장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활동 영역을 특정 유통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까지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칠레시장은 전통적으로 현지토착기업의 세력 이 막강해 Sears, JC Penny, Home Depot, Royal Ahold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통 체인 점들이 모두 실패하였으며,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Carrefour가 슈퍼마켓 시장 2.5%를 유지하며 한 때 약진했으나 결국 칠레 대형 유통업체인 D&S 그룹에 합병되었다.

주요 유통업체로는 백화점 체인인 Falabella와 Ripley, Almacenes Paris 등 3대 백화점 체인과 슈퍼마켓 등의 유통체인을 거느린 Cencosud, D&S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대형 복합 쇼핑 단지에 함께 입주하거나, 독립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토종 유통업체의 중남미 인근국 진출이 활발하다.

마. 전력산업

칠레는 1992년 이후 매년 약 7%씩 계속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 수요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칠레의 총 발전량은 50,920 백만 Gwh정도로 전년도 대비 약 4.5% 정도 증가하였다.

칠레 주요 전력 공급원은 천연가스로, 전력의 80% 이상에 아르헨티나의 가스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가 자체 공급 물량 부족을 이유로 수시로 대칠레 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있어서 칠레 에너지 불안의 근원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칠레정부는 대체 에너지 공급원을 발굴을 모색하는 한편, 대체 에너지 개발 계획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통적으로 배타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바첼렛 정부도 원자력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칠레 에너지 위원회는 2007년 3월에 원자력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부 학계/정계의 해외 시설 견학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력 부문은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으며 정부 측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특정 업체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개 업체가 발전, 송전, 배전 중 2개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1개 업체가 발전/송전/배전 3가지 분야를 망라할 수는 없는 구조이다.

칠레는 크게 4개의 전력공급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북부 SING와 중부 SIC 시스템 2개가 대부분의 산업,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북부 SING 시스템은 칠레 인구의 약 5% 정도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어 일반 가정에 대한 전력공급보다는 북부지역에 밀집한 광업지대에 대한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남부는 SIC 시스템으로 공급되며, 칠레전체 인구의 약 93% 정도의 수요를 충당(일반 가정 및 산업)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칠레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방에 의한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한 이후 WTO, APEC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확대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1997년 캐나다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8개국과 FTA를 체결 했으며, 중남미 인근 10개국과도 경제 보완 협정을 체결하여 평균 수입관세율이 2%미만이다.

2004년 4월 아시아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가 발효되었으며, 2006년 10월 1일부로 중국, 11월부로 P4(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회원국인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과의 협정도 발효되었다.

일본과는 2007년 3월말에 FTA를 체결하였으며, 약 6개월만인 9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박람회,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국가 홍보행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호주, 터키, 에쿠아도르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현황 (총 48 개국과 체결)

체결국가		발효시기(체결 시기)
캐나다		1997.7.5 (1996.12.5)
멕시코		1999.8.1 (1998.4.17)
중미 5 개국	코스타리카	2002.2.14 (1999.10.18)
	엘살바도르	2002.6.3 (1999.10.18)
	니카라과	양자협상중(1999.10.18)
	온두라스	국회비준중(1999.10.18)
	과테말라	양자협상중(1999.10.18)
EU 27 개국		2003.2.1 (2002.11.18)
미국		2004.1.1 (2003.6.6)
EFTA 4 개국		2004.12.1 (2003.6.26)
한국		2004.4.1 (2003.2.15)
P4 3 개국		2006.11.8 (2005.7.18)
중국		2006.10.1 (2005.11.18)
파나마		미정 (2006.6.27)
페루		미정 (2006.8.22)
콜롬비아		미정 (2006.11.27)
일본		2007.9.1 (2007.3.27)

주: * 중미 5 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 EFTA 4 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P4 3 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나머지 1 국은 칠레)

* EU 27 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칠레의 경제보완협정 체결현황

체결국가	발효일자(체결시기)
멕시코	1992.1.1(*1998 년 FTA 로 전환)
베네수엘라	1993.7.1(1993.4.2)
콜롬비아	1994.1.1(1993.12.6) (*2006 년 FTA 로 전환)
에콰도르	1995.1.1(1994.12.20)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1996.10.1(1996.7.25)
페루	1998.7.1(1998.6.22) (*2006 년 FTA 로 전환)
볼리비아	1993.7.7(1993.4.6)

칠레의 FTA 유사무역협정(부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체결국가	발효일자(체결시기)
쿠바	국회 비준 요(1998.8.21)
인도	2007.8.16(2006.3.8)

주: 경제보완협정(ACEs - Los Acuerdos de Complementacion Economica)은 자유 교역의 대상이 재화에 국한되는 데 반해, FTA 는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한 자유교역 까지를 포괄.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일정 물량의 재화에 대한 자유교역 가능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칠레 정부는 '99 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당초 전망으로는 2007 년에는 구리가격이 2006 년에 비해 하락하면서 수출은 다소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11 월 기준으로 칠레의 무역수지 흑자는 약 235 억불을 기록하고 있어 2006 년에 기록한 211 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을 경신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최근 6 개년간 칠레 수출입 총괄

(단위: 미\$백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
수출	17,430	20,140	30,901	39,536	55,884	63,426
수입	15,444	17,337	22,339	30,300	34,750	39,952
무역수지	1,986	2,803	8,562	9,236	21,134	23,474

자료원: Nexislexis Chile

가. 수출동향

'06 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41.35% 증가한 55,884 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구리, 올리브덴, 철광 등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66.4% 차지, 2005 년도의 58.1% 보다 약 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구리 등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상승, 목재, 연어 및 포도주의 수출 활성화에 힘입어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하였다.

당초'06 년 구리의 평균가는 파운드 당 US\$ 1.50 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관들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구리가격 초 강세로 2006 년 지난 5 월 사상 최고 가격인 파운드 당 US\$ 4.00 에 근접하는 등, 평균가격 US\$ 3.01 로 2006 년을 마감하였다. 사상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칠레지만, 총 수출의 약 60%가 광물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 광물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인 데다가 기타 주력 수출 품목도 연어, 목재, 펄프, 과일, 포도주 등 대부분 1 차 상품에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6 년도 칠레의 수출실적

(단위: 백만 불)

품 목	2005 년	2006 년	증가율(%)	수출비중(%)
광물 (구리) (올리브덴)	22,588 (18,306) (3,273)	37,576 (33,340) (2,770)	66.4 (82.1) (-15.4)	66.2 (58.7) (4.9)
연어	1,667	2,133	28.0	3.8
펄프	1,048	1,180	12.6	2.1
포도주	883	966	9.4	1.7
원목	720	755	4.9	1.3
포도	909	1,042	14.6	1.8
기타	11,046	13,146	19.0	23.1
총수출액	38,861	56,798	46.2	-

자료원: 칠레중앙은행

주: 참조 자료원이 다른 관계로 품목별 수출입 통계액이 상단의 수출입추이와 불일치함

칠레의 10 대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불)

No.	국가	2004 년		2005 년		2006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4,569	14.79	6,248	16.19	8,940	16.00
2	일본	3,696	11.96	4,535	11.75	6,038	10.80
3	중국	3,212	10.40	4,389	11.37	4,934	8.83
4	네덜란드	1,653	5.35	2,301	5.96	3,814	6.83
5	한국	1,804	5.84	2,211	5.73	3,405	6.09
6	이탈리아	1,338	4.33	1,658	4.30	2,812	5.03
7	브라질	1,402	4.54	1,729	4.48	2,758	4.94
8	프랑스	1,286	4.16	1,387	3.59	2,412	4.32
9	멕시코	1,304	4.22	1,582	4.10	2,288	4.09
10	독일	901	2.92	931	2.41	1,759	3.15
	총계(기타포함)	30,901	100	38,600	100	55,884	100

자료원: Nexislexis Chile

나. 수입동향

중앙은행이 집계한 2006 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35,241 백만 불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중간재가 21.4%, 자본재가 5.1%, 소비재가 19.6% 수입증가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중간재 수입에서는 석유 수입이 4,874 백만 불로 전년 대비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 년도 칠레의 수입실적

(단위: 백만 불)

품 목	2005년	2005년	증가율(%)	수입비중(%)
소비재	4,610	5,513	19.6	15.6
중간재	18,352	22,271	21.4	63.2
(석 유)	(3,779)	(4,874)	(29.0)	(13.8)
(기타연료)	(2,449)	(3,239)	(32.3)	(9.2)
자본재	7,093	7,458	5.1	21.2
총수입액	30,055	35,241	17.3	100.0

자료: 칠레중앙은행

주: 참조 자료원이 다른 관계로 품목별 수출입 통계액이 상단의 수출입추이와 불일치함을 참고바람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 16.3%의 비중을 보여 전년에 근소한 차이로 아르헨티나에 밀렸던 시장 점유율 1 위를 탈환하였다.

이외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브라질, 중국, 한국 등이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FTA 가 2006.10.1 부로 발효되어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10 대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불)

No.	국가	2004 년		2005 년		2006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3,377	15.12	4,708	16.13	5,570	16.03
2	아르헨티나	4,143	18.56	4,804	16.13	4,505	12.96
3	브라질	2,778	12.44	3,772	12.66	4,237	12.19
4	중국	1,846	8.27	2,539	8.53	3,487	10.04
5	한국	696	3.12	1,076	3.61	1,641	4.72
6	페루	694	3.11	1,107	3.72	1,427	4.11
7	앙골라	431	1.93	1,197	4.02	1,317	3.79
8	독일	825	3.70	1,178	3.95	1,244	3.58
9	일본	797	3.57	1,016	3.41	1,147	3.30
10	멕시코	618	2.77	762	2.56	1,000	2.88
	총계 (기타포함)	22,339	100	29,788	100	34,750	100

자료원: Nexislexis Chile

2007년 들어서도 칠레의 주요 교역국과 주력 수출/수입품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FTA 체결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음은 물론,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9월 1일부로 일본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2008년에는 일본과의 교역도 FTA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타이어 등 일부 우리나라의 대 칠레 주력수출 품목에서의 경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칠레는 우리나라의 FTA 최초 체결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의 수입, 수출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교역에서 전통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 한-칠레 교역수지 적자는 20억불에 달하지만, 대 칠레 수입의 70% 이상이 원자재인 구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칠레와의 교역 적자는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구리, 메탄올, 포도주, 돼지고기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칠레에 자동차, 경유,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띠고 있다.

2007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 칠레 교역적자는 10억불 이하로 전년 대비 50%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칠레 경유 수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산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칠레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비상발전용 디젤 수요가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대 칠레 주력 수출품목인 경유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대 칠레 자동차 수출은 금년 상반기 중 일본을 추월하여 9월 기준 신차시장 점유율 28.6%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과 칠레의 FTA가 9월부터 발효되어 일본차의 경쟁력 제고가 예상, 2008년에는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 수출입 총괄

(단위: 미\$백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517	708	1,151	1,566	36.1%	2,525	94.4%
수 입	1,058	1,933	2,279	3,813	67.3%	3,514	9.8%
총 교 역	1,575	2,642	3,430	5,379	56.8%	6,039	34.2%
무역수지	-541	-1,225	-1,128	-2,247	-	-989	-

자료원: KOTIS

□ 주요 품목별 수출입실적

2007년 10월 기준 대칠레 10대 수출품목

순위	MTI	품목명	금액(US\$천)	증가율(%)
1	133	석유제품	1,470,640	264.6
2	741	자동차	535,928	38.4
3	812	합성수지	97,952	-19.7
4	812	무선통신기기	87,615	-0.9
5	613	철강판	35,892	22.6
6	742	자동차부품	29,699	20.3
7	725	건설광산기계	28,937	12.4
8	821	영상기기	24,577	-28.5
9	320	고무제품	23,911	25.1
10	813	컴퓨터	12,554	37.9

자료원: KOTIS

2007년 10월 기준 대칠레 10대 수입품목

순위	MTI	품목명	금액(US\$천)	증가율(%)
1	622	동제품	1,579,333	17.3
2	113	동광	1,059,317	-10.0
3	251	제지원료	189,929	86.4
4	119	기타금속광물	154,926	135.3
5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143,348	-4.3
6	022	육류	99,791	44.9
7	011	곡실류	60,585	43.2
8	116	아연광	42,391	-25.1
9	046	수산물가공품	33,105	-9.7
10	228	정밀화학원료	32,171	29.3

자료원: KOTIS

주: 동 수입/대칠레 총수입(%): 69.2%(2003년)→75.9%(2004년)→67.0%(2005년)→78.4%(2006년)

□ 기타 참고자료

칠레의 주요원산지별 신차 판매현황

국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	대수	%	대수	%	대수	%	대수	%	대수	%
총 계	100	119,501	100	148,573	100	182,347	100	190,639	100	163,594	100
한 국	20.5	22,510	18.8	31,202	21.0	42,320	23.2	48,925	25.7	46,762	28.6
일 본	21.6	28,109	23.5	37,716	25.4	46,140	25.2	49,762	26.1	41,923	25.6
아르헨		22,258	18.6	28,672	19.3	29,173	16.0	22,486	11.8	16,018	9.8
중국	0	0	0	0	0	0	0	920	0.5	2,886	1.8

자료원: 칠레 자동차협회(ANAC)

한국의 포도주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미\$천)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총 계	45,783	100.0	57,979	100.0	67,655	100.0	88,607	100	119,567	100
프랑스	22,684	49.5	26,350	45.4	24,967	36.9	32,705	36.9	45,491	38.0
칠 레	2,990	6.5	8,008	13.8	11,884	17.6	15,376	17.4	20,669	17.2
미 국	7,192	15.7	8,136	14.0	9,471	14.0	12,482	14.1	13,981	11.7

자료원: KOTIS(MTI015740)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가별 수출

(단위: 미\$백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1,563	31.4	14,987	29.6	20,387	36.0	21,011	23.0
멕시코	2,994	22.0	3,789	26.6	6,285	65.9	6,129	16.3
브라질	1,785	56.9	2,411	35.1	3,063	27.1	2,816	5.7
파나마	1,264	0.9	1,623	28.4	2,227	37.2	2,686	27.8
칠 레	708	36.9	1,151	62.5	1,566	36.1	2,525	94.4

자료원: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금지품목

칠레는 미풍양속 저해물(음란물, 포르노),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 수준의 수입 금지 품목이 외에 중고자동차(중고오토바이 포함) 및 중고 또는 재생타이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 금지의 이유는 환경 오염 방지이며,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 목적의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Iquique 및 Punta Arenas 와 같은 자유 무역지대에서 수입,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나. 수입제한품목

아래 표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품 목	해당기관
무기,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Direccion Nacional de Movilizacion de las FF.AA.(국방부소속기관)
알콜, 알콜음료, 식물, 동물, 조류, 동식물 파생상품, 비료, 살충제 등	SAG(농업부소속)
식품, 유해물질, 의약품, 화장품, 환각제 등	Servicio de Salud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어업제품	Servicio Nacional de Pesca

다. 비관세 장벽

칠레는 자국 농업보호를 위하여 밀/밀가루, 설탕, 올리브오일(엑스트라버진)에 대하여 가격 밴드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기 품목이 수입될 경우 수입자 신고가격과 무관하게 정부에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그러나 밀/밀가루의 가격밴드제도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다고 WTO에 제소하여 7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하여 칠레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6.13일 칠레 농업부 장관은 WTO 결정에 따라 밀/밀가루에 대한 가격 밴드를 철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29일 국회에서 관련 대책 법안이 상정되었다.

밀가루에 대해 칠레가 WTO와 합의한 최고 관세율인 31.5%의 수입관세 부과(밀에 대해서는 6%의 관세 적용), 현행 1년 및 1년 갱신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한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라. 수입쿼터

칠레는 설탕, 육류, 생선, 치즈, 염화칼륨, 기름 등의 일부 농수산물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수입 쿼터를 두고 있다.

품목별 쿼터량은 수입원산지에 따라 상이하며, 한국과는 수입 쿼터를 두고 있지 않다.

원산지별 품목별 쿼터는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aduana.cl> 메뉴 중 Tramitacion en la linea(Online Procedure)의 Consulta Cupo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요 품목의 2007년 수입쿼터

품목 /원산지	연간 수입쿼터(톤)
설탕	
아르헨티나	21,000
과테말라	16,700
브라질	9,700
기타국가 합계	12,600
육류	
브라질	3,000
파라과이	3,500
우루과이	750
캐나다	(소고기): 10,000 (돼지고기): 4,000
미국	(닭고기) 8,400
코스타리카	(소고기) 2,500
생선	
대구류	
EU	5,000
연어	
EU	40
치즈	
EU	1,575
영화칼륨	
캐나다	34,000
유지류	
캐나다	(평지류 Colza Oil)5,000
EU	(올리브유 등 유지류) 3,150

자료원 : 관세청 홈페이지(www.aduana.cl)

4. 대한수입규제 동향

칠레 정부에서 법으로 수입을 금지/제제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 대해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수입시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5. 관세제도

칠레는 2003년 1월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물품가액의 6%에 해당하는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일부 품목 추가세금 부과).

칠레와 FTA 또는 경제보완협정 등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 내용에 준하는 관세율을 부과한다. 현재 칠레는 우리나라 포함 미국, EU, 중국, 일본 등 48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실질 수입관세율은 2% 미만이다.

우리 나라 제품의 경우 FTA 정식 발효(2004.4.1) 이후, HS 코드에 따라 개별적으로 0-13년까지 관세 철폐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가. 관세부과 기준 및 산정방식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며, CIF 가격에 기본 수입 관세(일반적으로 6%)와 부가가치세(19%)를 부과하고 있다.

□ 관세부과 예

- 수입품목의 CIF가격이 US\$ 1,000 이라고 할 때
 - 기본관세 6% = US\$ 60.00
 - 부가가치세 19% 부과=> $1,060 \times 0.19 = \text{US\$}201.40$
 - 총 부과 관세는 US\$ 201.40 (a + b)

나. 추가세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세금(sobretasa)가 부과되고 있다.

- 특별소비세
 - 금, 백금 및 상아로 만든 제품, 보석, 천연 또는 합성 귀석, 고급 양탄자 및 직물, 고급 가죽, 캐비아 통조림 및 그 대용품, 공기총 또는 압축가스총
 - 관세 산정 시 기본관세에 15%를 추가 부과
- 주세
 - 알콜, 무알콜 음료에 기본관세, 부가가치세 외 추가세 부과
 - 미네랄 음료, 인공음료 (13%)
 - 포도주, 샴페인, 맥주 (15%)
 - 술, 피스코, 위스키, 소주, 증류주 등 (27%)
- 담배세: 국세청이 공식판매가(CIF가격 아님)에 세금을 추가
 - 시거 (51%), 궤련 (60.4%), 손으로 만든 담배(57.9%)
 - 담배세 = 공식판매가격 x 담배세율(51% / 60.4% / 57.9%)
 - 승용차 사치세: 2007년부터 철폐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칠레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6%의 단일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약 40여 개국과 체결한 양자무역협정으로 실질적인 평균 수입관세율은 2006년 2월 기준 1.9%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도 FTA체결효과에 힘입어 0.5% 정도에 불과하다.('06년 5월 기준)

칠레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에는 6%의 관세가 부과되나, 협정 체결국의 경우 협정 내용에 따라서 관세가 0%이거나 매년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율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상에서 www.aranceles.cl 에 접속하여 관세율 조회 희망 국가 선택 후 제품 HS Code를 입력하면 칠레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의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국가는 6% 단일관세 적용)

6. 주요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 인증

칠레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SEC(전기연료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인증을 통과하여야 한다. SEC 인증은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SEC이 지정한 안전검사가 필요함 품목군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 난로, 온수기 등 가정용 전기제품을 비롯하여 전선, 전기 콘택트, 스위치, 전기회로, 조명기구, 전구, 가스 및 기타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등이며, 안전 의식 강화에 따라 인증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 중이다.

제품 수출시 바이어를 통해 해당 품목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SEC 인증 품목군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다(스페인어).

- http://www.sec.cl/portal/page?_pageid=33,70365,33_2261798&_dad=portal&_schema=PORTAL

각종 해외 안전 인증을 보유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SEC의 인증 필요 품목군에 해당할 경우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칠레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CAM, Centrigas 등 SEC이 지정해 놓은 10여 개의 업체가 있다.

- 각 품목별 인증기관을 확인
 - <http://www.sec.cl/pls/portal/docs/PAGE/SEC2005/ELECTRICIDAD/CERTIFICADORAS%20DE%20PRODUCTOS%20ELECTRICOS/FILES/LISTADO%20NUEVO%20ELECTRICOWEB.1.XLS>

최근에는 칠레의 인증 기관과 제휴관계에 있는 해외 인증 기관을 통해서 현지에서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수입업체를 통해 국내에 칠레 인증기관의 제휴 기관이 있는지 파악하여 수출 전에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국내에는 칠레 인증업체와 제휴하고 있는 기관이 2개사 정도에 불과하고 인증 가능 품목이 많지 않다). 생산지에서 심사를 마친 서류를 SEC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수입시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관련 절차에 대한 소개는 다음 링크(스페인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tramitefacil.gov.cl/1481/article-47266.html>

UL(미국), VDE(독일), NF(프랑스), IMQ(이탈리아), KEMA-KEUR(네덜란드), OVE(오스트리아), SEV(스위스), BEAB(영국), CSA(캐나다), JIS (일본), DEMKO(덴마크), SEMKO (스웨덴), NEMKO(노르웨이), CEBEC(벨지움), SABS(남아프리카공화국), AENOR(스페인)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인증 절차가 다소 간소하다.

7. 지적재산권

2007년 1월, 칠레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적재산권 우선감찰대상국가(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었다.

칠레는 법률로 지적재산권 등록에 대해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판결 및 처벌 기준이 미미하고 정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칠레에 진출해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가로 낙인 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칠레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 강화 노력이 예상된다.

이러한 와중에 금년 9월 칠레 형사법원은 제약업체 로알파르마 사가 프랑스 제약업체 사노피아방티스 사의 플라빅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제약업계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첫 번째 제제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 지적재산권

기술사용계약은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기술사용료 지급조항은 중앙은행 외환거래 위원회의 심의통과가 필요하다. 이외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외국 모기업 및 칠레소재 자회사간의 계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술 사용계약을 허용한다.

기술사용료는 기술사용계약으로 발생한 순 매출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상표권 사용의 경우 1%, 상표권 및 제조공정권 사용의 경우 3%, 특허권 및 Know-How 사용의 경우 5%까지 인정한다. 외국인의 기술 이전 수입에 대해 30%의 Royalty Tax, 국외제공 특정기술 서비스에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 저작권

칠레에 거주하는 칠레인 혹은 외국인 저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간 보호된다.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저자의 경우에는 칠레가 가입한 국제협약 회원국(Universal Convention on Author's Right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author's rights)에 한해 보호된다.

☐ 상표권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보유자는 만기 30일전에 갱신해야 한다.

칠레산업 재산권부(Department of Industrial Property/서어: Departamento de Propiedad Industrial) 에는 연간 35,000건의 신청을 받으며, 이중 2만여 건이 등록된다.

☐ 특허권

15년간 보호되며, 갱신되지 않는다. 매년 1,500여 건이 신청되며 이 중 500여 건이 등록된다. 의약품의 경우 20년으로 알려져 있다.

□ 산업디자인 및 유틸리티 모델권

10년간 보호되며 갱신되지 않는다.

□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 완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권리 보유자의 사전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 등록절차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 등록기관: Departamento de Derechos Intelectuales

- 주 소: San Isidro 247, 2° piso, Santiago Centro, Chile
- 연 락 처: (562)2222663 - 6346497. Fax: (562) 63552268.
- 근무시간: 월~금 09:00 ~ 14:00 시
- URL: www.dibam.cl
- 비용
 -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프로그램 등: 0.35UTM (UTM은 과세단위가 되는 환율로, 매월 변동. 2007년 6월 현재 1UTM=32,529페소=약US\$ 62
 - 비디오, 영화 등 영상물: 0.4UTM
 - 기타 등록: 0.1UTM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인터넷 신청 가능).

○ 등록기관: Departamento de Propiedad Industrial(경제부 산하)

- 주 소: Moneda N° 970, piso 10, Santiago Centro
- 연 락 처: (562)688 3468. Fax: (562) 6883484.
- 근무시간: 월~금 09:00 ~ 14:00 시
- URL: www.dpi.cl
- 비용: 약25,000페소 + 2UTM 내외

신청하면 일단 관보에 30일 혹은 60일간 게재한다. 만약, 이의가 없을 경우 권리가 부여된다. 이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 간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 상표 등록시에는 이의가 없을 경우 6개월이 소요되며, 특허권의 경우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기간은 다른 선진국에서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 지적재산권 불법 복사 현황

최근 들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는 여전히 일반적 관행이 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65% 가량이 불법 복제품이다. 영화, 음반의 경우 불법 복제품 비중이 40% 이상이며, 연간 불법복제품 시장규모가 1억불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티아고 시내 곳곳의 불법 DVD 노점에서 심지어 한국 영화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불법판매 DVD는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은 공CD인 경우도 있다.

칠레시장의 불법복제품 비중 및 금액

기준	2004		2005		2006	
품목	손실액 (US\$백만)	불법 복제비율(%)	손실액 (US\$백만)	불법 복제비율(%)	손실액 (US\$백만)	불법 복제비율(%)
음반	24.8	50	22.7	51	29.6	44
사무용 S/W	49.0	64	55.0	66	65.0	64
영상물	2.0	40	10.0	35	N.A	N.A
오락 S/W	37.9	70	N.A	N.A	N.A	20
서적	1.0	N.A	1.0	N.A	1.0	N.A
합계	114.7	-	88.7	-	95.6	-

자료원: I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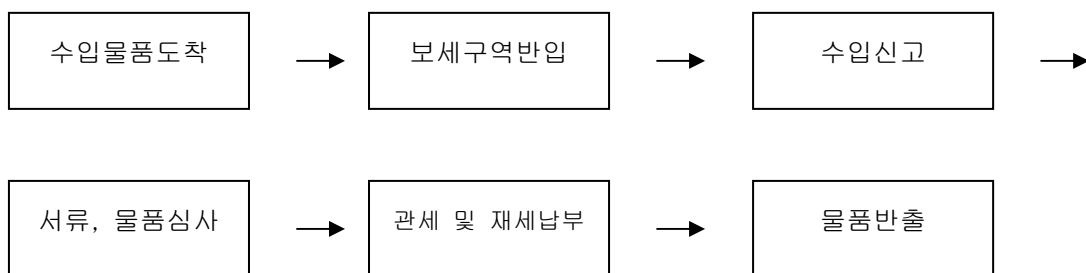
□ 관련기관

Department of Industrial Property 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있다.

- 홈페이지: <http://www.dpi.cl>

8. 통관/운송

가. 통관업무 흐름도



칠레 세관은 인보이스 금액 US\$500 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 통관사를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도착 후 물품반출까지는 최소 이틀 정도 소요되고 있다.

수입 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 시일이 늦어질수록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된다. 90일 이내 반출치 않으면 수입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세는 무역협정 미체결국의 경우 품목, 원산지에 관계없이 일괄 6%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19% 이다.

나. 통관 시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Declaracion de Ingreso)와 함께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보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사전 수입승인품목의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수입승인서도 제출한다.

다. 칠레의 주요항구

칠레의 최대 항구는 San Antonio 항구로 연간 약1,2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19개 선박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인근 Valparaiso는 두 번째 규모의 항구로 연간 6백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나머지 항구들은 규모와 물동량이 매우 작은 편이다.

지역별 주요 항구

지역	항구	홈페이지	컨테이너비	기준일
I	Puerto de Arica	www.puertoarica.cl	N/A	N/A
IV	Coquimbo	www.puertocoquimbo.cl	N/A	N/A
V	San Antonio Valparaiso	www.saiport.cl http://www.portvalparaiso.cl	요금표 (서어) 요금표 (서어)	2007 2007.2
VIII	Talcahuano	http://www.ptotalsve.cl	N/A	N/A
X	Puerto Montt	www.empormontt.cl	요금표 (서어)	2007
XII	Punta Arenas	www.epa.co.cl	N/A	N/A

항구별 컨테이너 비용과 창고비, 부대비용 등은 항구별로 상이하고 화물 종류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다양하므로 현지 진출 포워딩사나 운송회사를 통해 확인을 권한다.

한국-칠레간 해상 운송기간은 약 40일 정도 소요되나, 영세업체를 통해 LCL로 물품을 발송할 경우 컨테이너가 다 찰 때까지 업체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선적일을 확인해야 한다.

칠레 주재 한국 포워딩사

업체명	태웅로지스틱스(TGL S.A.)
주소	Av. Luis Thayer Ojeda 166, Oficina 802, Providencia, Santiago, Chile
전화	(56-2)233-4143
팩스	(56-2)233-5097
홈페이지	www.e-tgl.com
이메일	isabelkim@e-tgl.com

업체명	위덱스 물류(Widex Int'l Chile CIA.,LTDA.)
주소	Avenida 11 de Septiembre, No.2214, Oficina 179, Santiago, Chile
전화	(56-2)231-4961
팩스	(56-2)231-3648
홈페이지	www.widex.co.kr
이메일	Tommylee@widex.co.kr

□ 현지 주요 운송업체

해상 운송업체

업체명	A.J. BROOM Y CIA.(육상 운송도 함)
주소	Mac Iver 225, Piso 10, Santiago, Chile
전화	(56-2) 549 8400
팩스	(56-2) 633 5684
홈페이지	www.ajbroom.cl
이메일	commercial@ajbroom.cl

업체명	CCNI
주소	Av. Andrés Bello 2687, Piso 16 y 17, Vitacura, Santiago, Chile
전화	(56-2) 339 1300
팩스	(56-2) 203 9060
홈페이지	www.ccni.cl
이메일	info@ccni.cl

업체명	CSAV
주소	Hendaya 60, Piso 11,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	(56-2) 330 7000
팩스	(56-2) 330 7700
홈페이지	www.csav.com

업체명	MARITIMA VALPARAISO
주소	Av. Nueva Tajamar 481, Of. 1406, Torre Sur, Santiago, Chile
전화	(56-2) 203 6780
팩스	(56-2) 203 6779
홈페이지	www.marval.cl

육상 운송업체

업체명	Agunsa
주소	Av. Andrés Bello 2687, Piso 15, Santiago, Chile
전화	(56-2) 203 9000
팩스	(56-2) 203 9009
홈페이지	www.agunsa.com
이메일	aulloa@agunsa.cl

업체명	Tansportes Schiappacasse
주소	Camino a Lonquen 13.070, San Bernardo, Santiago, Chile
전화	(56-2) 396 8000
팩스	(56-2) 396 8101
홈페이지	www.schiappacasse.cl
이메일	info@schippacasse.cl

업체명	DECAPACK
주소	Claudio Arrau 9452, Pudahuel, Santiago, Chile
전화	(56-2) 488 1000
팩스	(56-2) 488 1010
홈페이지	www.decapack.cl
이메일	info@decapack.com

주소	Av. Pedro de Valdivia Norte 0204, Providencia, Santiago, Chile
전화	(56-2) 753 4060

팩스	(56-2) 753 4069
홈페이지	www.pacificlog.cl
이메일	ibarros@pacificlog.cl

업체명	Transportes Bello
주소	San Ignacio 141, Loteo Industrial Portezuelo de Quilicura, Santiago, Chile
전화	(56-2) 738 6285
팩스	(56-2) 738 6289
홈페이지	www.transbello.cl
이메일	tbello@transbello.cl

업체명	Saam
주소	Hendaya 60, Piso 8,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	(56-2) 731 8225
팩스	(56-2) 331 5033
홈페이지	www.saam.cl
이메일	santiago@saamsa.com

주요 통관서비스 업체

업체명	Stephens Agencia de Aduana
주소	Blanco 1215, Valparaíso, Chile
전화	(56-32) 502526
팩스	(56-32) 502545/46/48
홈페이지	www.stephens.cl
이메일	webmaster@stephens.cl

업체명	Jaime Sierralta Castillo
주소	A. Prat 214, Of. 402, Edificio Brac, Antofagasta, Chile
전화	(56-55) 222254
팩스	(56-55) 221303
홈페이지	www.sierralta.cl
이메일	agencia.anf@sierralta.cl

업체명	Felipe Serrano Solar
주소	Doctor Barros Borgoño 225, Santiago, Chile
전화	(56-2) 235 1083
팩스	(56-2) 235 1087
홈페이지	www.felipeserrano.cl
이메일	info@felipeserrano.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Pedro Serrano S.
주소	Mac Iver 238, Piso 8, Santiago, Chile
전화	(56-2) 422 2411
팩스	(56-2) 422 2499
홈페이지	www.comerint.cl
이메일	info@comerint.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Pedro Santibáñez
주소	Huérfanos 770, Of., 1602, Santiago, Chile
전화	(56-2) 638 6100
팩스	(56-2) 638 6040
홈페이지	www.santibanez.cl
이메일	agenciassantiago@santibanez.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Browne
주소	Santa Lucía 344-C, Santiago, Chile
전화	(56-2) 637 7000
팩스	(56-2) 637 7046 - 43
홈페이지	www.browne.cl
이메일	agencia@browne.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Manuel Yañez
주소	Blanco Encalada 480, Talcahuano, Chile
전화	(56-41) 794200
팩스	(56-41) 749292
홈페이지	www.aaca.cl
이메일	serviciocliente@aaca.cl

□ 참고 -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양식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 수출업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국간 협정에 따라 아래의 서식과 같이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선적서류 발송시 B/L, Invoice, Packing List와 동봉한다.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칠레 FTA 협정문 검색 후 첨부자료(한-칠레 FTA이행고시 별지 제 9호 서식)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칠레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제출하여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 (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Producer	8. Regional Value Content	9. Country of Origin
10. Remarks:					
11: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칠레는 인구 약 1,600 만, 1 인당 국민소득 약 9 천불 수준의 시장이나, 높은 수준의 경제 개방과 세계 시장과의 결합력, 기업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보다 더욱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

칠레 정부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의 동등대우, 모든 경제 및 산업 분야의 전면 개방(일부 분야 제외), 정부간섭 최소화라는 외국인 투자정책 3 원칙을 추구하고 있어 남미지역에서 가장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칠레는 정치경제적 안정성, 일관성 있는 제도 등으로 인해 현재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지목된다. 특히 5 백만 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간에는 계약 체결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자유로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D.L. 600 조항)를 마련하고 있어 정국이 불안정한 중남미 지역에서 정치적 요인에 의한 투자 리스크가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힌다.

칠레는 1980년대에 남미 최초로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도 민영화를 지속하였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외국 자본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또한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 한국과도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칠레는 구리,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수출국이다. 칠레는 원자재개발, 가공형 투자나 1차 산품을 이용한 제조업 투자진출 시 칠레 내수시장은 물론 인근 제3국으로의 수출(48개국과 FTA 체결)도 유리한 시장으로 역내에서는 가장 투자매력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의 제조업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부품의 현지조달이 어렵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나. 칠레의 주요 경쟁력 지수

1) 낮은 국가 위험도

국제 신용평가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낮은 국가 위험도로 두각을 나타내는 있다. Standard&Poor's, Fitch 등은 칠레의 국가 신용도에 A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Moody's도 칠레의 상태를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2) 국가경쟁력

IMD 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칠레는 2007 년 조사대상 55 개국 중 26 위를 기록하였다. 전년의 23 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참고로 2006 년에 실시한 대상국을 117 개로 확대한 조사에서는 27 위를 차지한 바 있다.

3) 경제 자유도

Heritage Foundation 발표한 2006 년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칠레는 총 157 개국 중 14 위를 차지하였다. 2005 년에는 11 위(155 개국 중)였다. (한국은 45 위 기록)

4) 국가투명성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06 년 국가부패지수에서 칠레는 163 개국 중 20 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42 위를 기록)

5) 안정적인 국가 인프라

AmericaEconomia Business Magazine 이 미국 워싱턴 소재 리서치사인 CG/LA 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칠레는 운송/통신/전력/수도 등의 인프라 환경이 중남미에서 가장 잘 갖춰진 국가로 평가되었다. 칠레는 100 점 만점 중 83.4 점을 기록하였으며, 2 위인 트리니다드토바고와 3 위 콜롬비아가 72.2 점, 63.1 점을 기록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2006 년 12 월 자료).



Source: CG/La Infrastructure / AméricaEconomía

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외국 투자자들은 어떠한 칠레 회사든지 100%까지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를 일부 제한 하고 있다.

- 해운업: 칠레 영토권 내의 해안, 하천, 호수에서의 여객 • 화물운송은 원칙적으로 칠레인 개인소유 기업이나 칠레인(또는 칠레 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칠레소재 기업에게만 허용한다. 단, 900 톤 이상 화물운송 및 특수화물 운송 등의 경우 예외조항 적용하고 있다.
- 항공업: 외국인 대표 취임이 불가능하며 칠레에 본사를 설치해야 한다.
- 매스컴: 외국인 대표 취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자본투자는 가능하다
- 어업: 투자자의 국가가 해당국에서 칠레인 들에게 투자를 용인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상대주의 적용)
-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 (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하며, 채굴된 원유는 국제시세를 적용하여 ENAP 이 선취 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자력관련 광물개발
 -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 관련자원의 채굴 및 판매는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되어야 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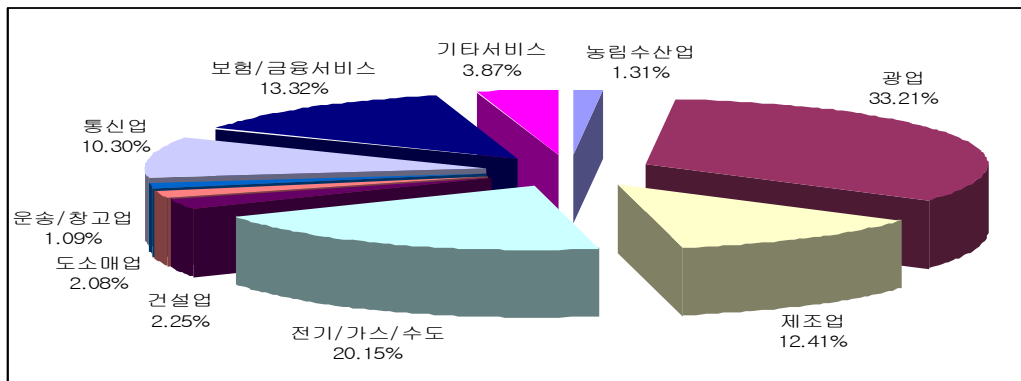
가. 산업별 외국인 투자동향

칠레는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투자 대상지로 각광을 받아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외국인투자가 국내 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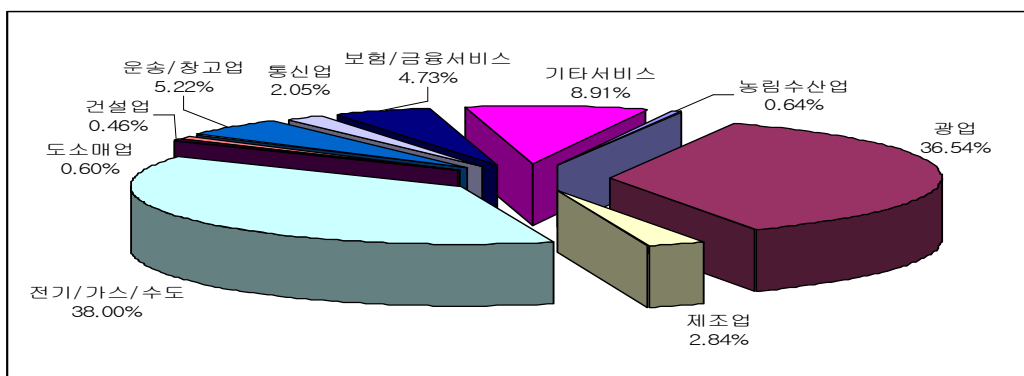
1974년부터 2006년까지의 산업별 외국인투자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광산업으로 3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서비스가 20.15%, 제조업이 12.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주로 식품가공, 목재/펄프 가공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2006년의 경우 전기/가스/수도 분야 및 광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구리가격 강세로 광산업계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광업분야에 대한 재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과, 전력수요 증가 및 아르헨티나 발 가스위기에 대비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74~2006 산업별 투자동향(D.L.600)



2006 산업별 투자동향(D.L.600)



자료원: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

나. 국가별 투자현황

1974 년 이후 2006 년 말까지 대 칠레 투자 주요국(투자 누계 기준)으로는 미국 (25.5%), 스페인 (21.7%) 그리고 캐나다(16.4%)이다. 일본은 2.9%, 한국은 0.1% 비중을 차지함.

주요 국별 對칠레 투자통계(1974-2006) - DL 600 기준

(단위: US\$ million)

국가	투자금액	점유율(%)
미국	16,162	25.5
스페인	13,767	21.7
캐나다	10,405	16.4
영국	5,652	8.9
호주	3,052	4.8
일본	1,839	2.9
이탈리아	1,630	2.6
네덜란드	1,556	2.5
프랑스	1,374	2.2
스위스	1,279	2.0
기타	6,784	10.7
Total	63,500	100.0

자료원: 외국인투자위원회, 2006.12.31 기준 잠정치

2006 년도에 대 칠레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국가는 캐나다, 미국, 호주, 독일, 이탈리아순.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양국간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

수출입 은행 집계 1980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칠레 직접투자 누계액(투자금액 기준)은 US 9천만 불 수준으로,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액 US 768억 불의 0.12%에 불과하다.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집계에 따를 경우 1974년부터 2006년까지 D.L.600 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들어온 한국의 투자규모는 대 칠레 총 외국인투자 액의 0.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칠레의 5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칠레와 활발한 교역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투자분야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연도별 대 칠레 투자 현황

(단위: US\$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0	2	2	2,550	3
1981	0	0	0	0
1988	5	3	3,368	9
1989	1	0	500	7
1990	2	1	31,600	5
1991	1	0	300	2
1992	1	1	504	1
1993	6	6	1,778	4
1994	9	3	4,878	9
1995	7	3	3,999	10
1996	2	2	2,565	2
1997	8	3	4,965	8
1998	2	1	9,000	1
1999	4	2	1,182	5
2000	3	1	1,063	2
2001	1	0	63	0
2003	3	3	15,300	2
2004	3	2	1,782	4
2005	5	2	3,306	5
2006	6	5	4,548	11
2007.9	8	2	15,795	8
Total	79	109,045	98	92,002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1980년의 수치는 1968-1980년까지의 누계임

□ 제조업/도소매업에 집중, 분야별 구분에는 큰 의미 없어.

수출입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 볼 경우 광업 34.73%, 제조업 34.96%, 도소매업 26.35% 등의 분포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규모 및 건수가 워낙 미미하여 업종별 구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대 칠레 투자내역(업종별)

(단위: 건, US\$천)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79	42	109,045	98	92,002
농림어업	11	4	5,777	8	2,863
광업	3	1	31,900	6	31,204
제조업	45	22	43,653	60	33,658
건설업	2	2	808	5	508
도소매업	16	12	25,408	17	23,670
통신업	2	1	1,500	2	100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2007.9월 기준)

광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거 LG 상사에서 칠레의 구리 광산에 투자했던 내역으로 보이거나(현재는 지분 미보유), 정확한 사실 파악은 불가능하다.

한 편, 2006 년 포스코 건설에서 미국계 전력회사인 AES Gener 사의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EPC 입찰을 수주하여 240MW 급의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2006 년 하반기에 칠레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금년에는 신광목재가 칠레 남부에 목재가공업 투자 진출을 하였고, 이외에 미국 교포기업인 Stanford 호텔에서 현지 호텔을 인수하기도 하는 등 우리기업, 교포업체의 투자분야가 다각화 되고 있다.

칠레 진출기업 리스트

연번	회사명	투자년도	지역	투자내역
1	삼성물산	1980	산티아고	지점 - 도소매업
2	삼성전자	1981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3	LG 전자	1981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4	현대종합상사	1982	산티아고	지점 - 도소매업
5	STX 팬오션	1987	산티아고	연락사무소 - 운수업
6	대우전자	1993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7	이건산업	1993	라우타로	단독법인 - 제조업(베니어단판 등 목재)
8	세라젬의료기	2004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9	위텍스	2005	산티아고	단독법인 - 운송창고업
10	태웅로지스틱스	2005	산티아고	단독법인 - 운송창고업
11	포스코건설	2006	산티아고	단독법인 - 건설업(플랜트)
12	한국타이어	2006	산티아고	연락사무소 - 도소매업
13	신광산업	2007	푸르티아	단독법인 - 제조업(베니어판 등 목재)

자료원: 무역관 자료 취합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주요 외국인 투자법령

칠레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실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외국인 투자법령을 이용할 수 있다.

1) D.L. 600 외국인투자규정에 의한 투자

D.L. 600 은 외국인투자자(개인/법인)가 칠레 정부(경제부)와 일종의 투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에서는 국가 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외환시장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나, D.L. 600 조 규정을 통해 칠레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운 외환시장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 D.L.600 규정이 발효된 1974 년 이후 칠레 외국인 투자의 약 70% 이상이 D.L. 600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단, 투기성 단기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1 년 이내에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D.L.600 규정을 통해 투자 자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최소 투자금액 요건은 미화 5 백만불이다.(고도기술의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US 250 만 불 이상도 가능)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6 개월 이내에 투자규모, 투자 자본형태, 투자 완료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광업투자의 경우 8 년 이내,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는 3 년 이내에 자본금을 반입해야 한다. 사전 탐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광업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금 도입기간을 최대 12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정부 측은 계약사항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지만 투자자는 증액투자, 투자목적 변경, 다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권리 양도 등 계약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계약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D.L.600 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정세율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 7 항에서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의 경우, 일반 세율대신 10 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으며 해당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 세제 시스템 하에서는 D.L. 600 조가 보장하는 42%의 고정세율보다는 일반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일반 조세제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고정세율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D.L.600 을 통한 투자에 대한 승인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담당하며, 일정 절차를 거쳐 최장 1 개월 내에 승인이 난다.

2)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 14 조(Capítulo XIV)에 의한 투자

칠레 중앙은행의 외환규정 제 14 조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D.L. 600 규정의 경우와 유사하다. 두 방식은 투자액의 규모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14 조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US\$ 1 만 불이다. 제 14 조를 통한 투자의 경우 D.L.600 규정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계약을 통한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D.L.600 에서 제공하는 조세고정제도는 제공 되지 않는다. 하지만 D.L.600 과 비교할 때 자본금을 투자 기간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회수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D.L.600 vs 외환규정 제 14 조

	D.L.600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 14 조
최소투자규모	US\$ 5,000,000	US\$ 10,000
투자절차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중앙은행에 외화반입 통보
투자금 회수	투자개시 1 년 후부터 가능	하시 가능
조세제도	일반조세제도/조세고정제도 중 택 1	일반조세제도
장점	높은 안정성(정부와 계약)	자본금회수 용이, 간편신속한 절차, 높은 효율성

나. 외국인 투자 장려분야

2000 년도부터 칠레 정부는 칠레생산진흥청(CORFO)을 통해 고도기술 관련 투자 건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소 US\$ 100 만 이상의 IT, BT, 백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및 신기술 도입 투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고도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사전타당성 조사자금 지원
 - 투자기업 또는 외부 컨설팅업체가 수행하는 사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토질분석, 건축&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에 대한 총 경비의 일정액 지원
- 고정자산 구입비용 지원
 - 부동산매입, 인프라구축, 기술장비 구입 등에 대하여 최고 US 50 만불 범위 내에서 총 경비의 40%까지 지원
- 고용훈련보조금 지급
 - 고용인력 1 인당 연간 최대 US 3,500 불 범위 내에서 IT 산업 전문가, 기술인력 등의 훈련경비 지원
- R&D 인센티브
 - 칠레 정부기관 및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IT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US 80 만불 범위 내에서 총 경비의 60~70% 지원

다.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칠레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며 칠레기업에 대한 100%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 연안운송업

- 칠레 영토권 내의 해안, 하천, 호수에서의 여객·화물운송은 원칙적으로 칠레인 개인 소유 기업이나 칠레인(또는 칠레 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칠레소재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 단, 900 톤 이상 화물운송 및 특수화물 운송 등의 경우 예외조항 적용.
- 900 톤 이상의 화물수송의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운송 가격에 기본 수입관세 6%를 추가하여 응찰하여야 하고 이 가격이 국내 업자 응찰가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 항공업

- 외국인 대표 취임 불가, 임원진 및 스탭 칠레인 구성 원칙, 대표의 칠레 거주 및 칠레 내 본사설치 의무

○ 방송업

- 외국인 대표 취임 불가, 임원진 및 스탭 칠레인 구성 원칙, 단, 칠레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자본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어업

- 투자자의 국가에서 칠레인에게 허용하는 동일 범위 내에서 투자 허용(상대주의)

○ 연료자원(원유/천연가스) 개발 및 판매

- 칠레 정부와 특별계약(CEOP)을 체결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도 연료자원 탐사/채굴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모든 연료자원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칠레 국영 석유공사 (ENAP)에서 국제시세를 적용하여 우선 매입권이 있음.

○ 원자력관련 광물 개발 및 판매

- 우라늄, 토륨 등의 채굴도 연료자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차적으로 원자력위원회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

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칠레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지역별 인센티브

칠레는 크게 12 개의 행정구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지역적으로 고립된 Arica 와 Parinacota 등 최북단 제 I 지역, Tierra del Fuego 등 최남단 제Ⅸ지역 등에

투자시 조세감면, 보조금, 연구비 지원 등 일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 광산업은 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1) D.F.L. 15 인센티브

- 해당 지역: I, XI, XII 지역 및 X 지역 일부 지방(Chiloe, Palena)
- 수혜 대상: 연 매출액 US\$1 백만 이하(대형 광산업체 및 수산업체 제외) 기업 및 최대 US\$1.4 백만불의 프로젝트
- 수혜 내역: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의 20%에 대한 면제
- 관련 기관: CORFO

2) D.L.889 인센티브

- 해당지역: 제 I, II, III, XI, XII 지역 및 X 지역 일부 지방(Chiloe)
- 수혜대상: 대형광산업체, 금융서비스업체, 수산업체 제외 모든 외투기업
- 인센티브: 고용보조금 제공(고용인력 1 인당 월 US\$38 불한도 내 17% 임금 환급)
- 관련기관: SII(국세청)

3) Arica Plan

- 해당지역: 제 I 지역 Arica, Parinacota
- 유효기간: 2007 년까지
- 수혜대상: Arica 에서 이루어지는 US\$ 10 만 이상의 투자나 Parinacot 에서 이루어지는 US\$ 5 만 이상의 신규투자
- 인센티브
 - Arica: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관광 분야 40%)
 - Parinacot-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금의 40%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4) Austral Plan

- 해당지역: 제 XI, XII 지역 및 X 지역 일부 지방(Palena)
- 유효기간: 2008 년까지
- 수혜대상: US\$ 5 만 이상투자 운송업, 농업, 양식업, 제조업, 에너지, 부동산, 관광, R&D 분야 외투기업
- 인센티브: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금의 32%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 관련기관: SII(국세청), CORFO

5) Navarino & Tierra del Fuego 법

- 해당지역: Tierra del Fuego 도서지역 및 칠레령 남극
- 수혜기간: 2035 년까지(일부지역 2036 년까지)
- 수혜대상: 최소 25%이상의 칠레 재화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광업, 제조업, 운송업, 어업, 관광산업 관련 외투기업

- 인센티브: 제 1 종 법인소득세, 부가세, 수입세 감면, 칠레 본토에 대한 총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캐쉬 그랜트
- 관련기관: SII(국세청), CORFO

6) Tocopilla 법

- 해당지역: 제 II 지역 Tocopilla 항구
- 수혜기간: 2027 년까지
- 수혜대상: 광산장비 관련 제조, 수리, 장비 취급 외투기업
- 인센티브: 제 1 종 법인소득세, 부가세, 수입세 감면
- 관련기관: SII(국세청), CORFO

7) 기타

칠레생산진흥청은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티아고 이외 지역에 연간 US 30 만불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TodoChile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티아고시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US 40 만불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US 8,400 불 한도 내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비용의 50%(US 200 만불 이상의 대형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US 50,000 불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IT, BT 등 고도기술 관련 투자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자금 지원, 고정자산 투자 파이낸싱, CORFO 기술센터 입주지원, Innova Chile 라는 국가 혁신 기술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R&D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칠레에서는 사업 개시를 위한 과정이 상당히 간단하다. (이론상으로는 1-3주 정도의 기간 만이 소요되나 지나친 관료주의로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투자 진출 형태에 관계없이 조세 제도는 거의 동일하다.

칠레에서 투자 진출의 형태는 현지 법인과 해외지사(Branch Office) 등이 있다.

□ 법인설립

칠레 법인은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와 유한회사(Ltda.,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칠레는 법정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본금을 정하고 회사 정관 및 기업 설립 서류를 상업 등기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유한 또는 주식 회사에 따라 주식관련 내용 등은 일부 상이하다).

- 정관 포함내용
 - 발기인(창립주주) 인적 사항, 회사명 및 주소, 사업내용 및 운영방안, 자본금 및 주주별 구성, 회계연도, 주주총회 일정, 이익배당방법, 청산방법, 중재방법, 주요 임원 및 감사진 명단 등

가. 법인설립절차

1) 기업 설립 구비서류 작성, 정관작성

2) 회사 설립등기(설립 60일 이내)

회사 정관과 법인설립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등기소(www.conservador.cl)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한다. 3~7일정도 소요되며 등기비용은 5,500페소+자본금의 0.2%이다(최대 300,000페소까지 부과).

3) 관보에 법인설립 공시(관보: Diario Oficial)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관보(Diario Oficial)에 법인설립을 공시한다. 관보 게재 비용은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후 게재까지 3~10일정도 소요된다.

○ 관보 게재 정보

- 법인 설립 목적, 주주 명단, 법인주소, 자본금 및 주주별 구성, 주요 임원 및 감사진 명단, 주주총회 일정, 이익배당방법, 청산절차, 중재절차, 임시이사회 명단, 기타 주주 동의사항 등

4) 납세등록번호(RUT) 발급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세청 사무소)

5) 영업허가증(Patente Comercial) 발급

□ 지사/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칠레에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립 서류를 갖추어 공증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상업등기소에 지사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지사설립 구비서류

- 본사의 정관 및 내규
- 본사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
- 본사가 지사장에게 부여한 본사 대리권(Power of Attorney)
- 지사의 상호 및 목적
- 지사로의 자금 지원 및 방법
- 지사의 주소

사전에 본사의 법인정관, 위임장, 임명장 등 구비서류 일체를 주한 칠레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칠레 외무부에 제출하여 다시 인증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공증한다.

□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절차는 공장의 형태, 규모,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장 설립에는 일반적인 건축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까지 다양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현지사정과 법률에 밝은 투자컨설팅 사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장 부지 매입	-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공업용지로 적합한 지 사전감정절차를 거쳐야 함. . - 부동산 구입시에는 협상력 있는 부동산 업체에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건축허가(공장설립허가)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설립허가를 득한 뒤 매매하는 것이 좋음.
건축허가	- 건축 허가는 해당지역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와 공장설립에 관한 세부 계획서(설계도, 지형도, 기술 명세서)를 제출하여 신청. - 각 구청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에는 30일정도 시간이 소요 되며, 건축업자의 technical study가 첨부될 경우에는 15일로 시일이 단축됨.
완공검사	- 건축이 완공되면 해당지역 구청에 검사를 요청해야 함. 검사는 요청 후 15-20 이내에 실시됨. 구청 담당자는 완공건축물이 건축허가서 기준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검사 확인서 발부.
사업면허 취득	건축물 완공에 대한 최종검사확인서 끝나면, 공장을 가동하기 이전에 사업면허(Commercial and Industrial Patent)를 취득 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최종검사확인서 - 국세청 세금 납입서 - 회사 정관 및 내규 - 공장 위생처리 관련 계획서 · 수속은 약 10일정도의 시일이 소요됨.

□ 각종 등기, 허가 절차

가. 상업등기 절차

○ 절차

- 등기소(<http://www.conservador.cl>)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 확인→사무소 내방→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소요기간: 2~3일(사무소별 사정에 따라 상이)

나. 납세등록번호(R.U.T) 취득절차

○ 절차

- 사무실 소재지 관할 국세청 사무소 내방→제F-4115호 서식 작성(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sii.cl>에서 다운로드 가능)→국세청의 사업장 소재지 확인→납세번호 발급

○ 구비서류

- 대표자 칠레 주민등록증(대리인이 갈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공증서류)
- 공증된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관보 게재 내역 및 상업등기소 등록서류

다. 영업활동허가(Patente Comercial) 취득절차

관할 구청에 따라 요구하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법인 설립 자문 변호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 구비서류
 - 회사 납세등록증(RUT), 회사 정관 사본(법인일 경우) 및 기업설립 관련 제반 서류
 - 기타 업종에 따라 관련기관 허가서 등 필요
 - 관할 구청 및 영위 업종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확인 후 준비해야 한다.
- 비용: 초기자본금의 0.0025~0.005 (매년)
- 소요기간: 평균 17.3일

□ 투자관련 정부 서비스 기관

가. 외국인투자위원회(Comite de Inversion Extranjera: Cinver)

- 주요 기능 및 권한
 - 외국인투자법령(DL600) 운영 및 감독
 - 투자유치활동전개(자료발간, 홍보활동, 투자유치단 파견 등)
 - 투자관련 무역협상 참여 (FTA, APEC, 기타 양자, 다자 투자협정 등)
 -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운영
 - 자체 해외조직 및 지방조직이 없어 해외의 경우 대사관 상무관, 지방의 경우 경제진흥청(Corfo)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업무 위임. 특히 고도기술투자, 저개발 지역 투자 유치의 경우에는 Corfo과 주로 협력
- 조직 구성
 - 주요의사 결정기구인 위원회(경제부장관,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중앙은행장 등 4명으로 구성되며 경제부장관이 당 연직 위원장임)를 두고 있으며 기관의 실질운영은 부위원장(Vice president)이 담당.
- 홈페이지: www.cinver.cl

나. 칠레 경제 진흥청: CORFO

칠레 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력 진흥하는 기관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기술, IT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 홈페이지: www.corfo.cl

다. 칠레 중앙 은행; Banco Central

외국인투자 관련, 외환법 1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관할하고 있다.

- 홈페이지: www.bcentral.cl

라. 정부 온라인 행정서비스; Tramite Facil

칠레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정절차 안내 사이트이다.

- 홈페이지: <http://www.tramitefacil.gov.cl>

□ 투자관련 법률회사, 컨설팅 회사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법률 사무소 및 컨설팅업체 리스트이다.

- DELOITTE www.deloitte.cl
 - Av. Providencia 1760, piso 7, Providencia
 - Tel: 56-2-729 8128 / Fax : 56-2-374 9177
- KPMG www.kpmg.cl
 - Isidora Goyenechea 3520, Piso 11, Las Condes
 - Tel : 56-2-798 1000
- PRICEWATERHOUSECOOPERS www.pwc.cl
 - Av. Andrés Bello 2711 Piso 5, Torre de la Costanera, Las Condes
 - Tel : 56-2-940 0000 / Fax : 56-2-940 0504

6. 투자입지여건

가. 자유무역지대

수출 산업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Iquique(칠레 북단)와 Punta Arenas(칠레남단)에 자유무역지대를 승인하였으며 Arica(페루 국경 인접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자유 무역 지대에는 제품의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도록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 이끼게 자유무역지대(ZOFRI: Zona Franca de Iquique S.A)

- 설립연도: 1975년 6월25일(Decree Law 341)
- 운 영 자: Zona Franca de Iquique S.A
 - Tel : (057) 515100, Fax : (057) 515190
 - E-mail : Zofri_inf@zofri.cl
 - Home page : <http://www.zofri.cl>
- 면 적: 230 헥타르
- 입주조건: 상업 및 공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입주특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입지적 특성: 칠레 북부 태평양 연안 항구도시로 칠레를 포함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상 중계무역지로 적합
- 인프라: 물류(Logistics) 서비스, 창고(17,880 평방미터), 자동차 야적장(18 헥타), 부품 센터(자동차부품 소매 60개 샵), 공업시설(조립, 제조공장)을 위한 600평방미터 규모의 작업장 6개), 쇼핑몰(360개 샵 입주)은행, 우체국, 환전소, 세관 등 밀집), 컨벤션센터(500백석 규모 1실50실 규모 4실), 공업단지 등
- 주요 입주업체: 제조업체들보다는 소니, 삼성, LG, 닌텐도, 몽블랑, 롤렉스, 카시오 등 유명브랜드의 수출입 디스트리뷰션 센터들이 다수 입주.
- 특기사항: 제조업보다는 칠레 인근국에 대한 물류기지로서의 기능 활용이 적합함.

나. 주요 산업단지

현재 칠레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주로 San Bernardo, Quilicura, Pudahuel과 같은 도심 외곽에 분포 되어 있다.

산업지대는 보통 가스, 전기, 용수 등의 인프라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산업분야를 특화한 산업지대는 매우 적으며 보통 같은 단지 내에도 사무실에서 제조공장에 이르기 까지 입주형태가 다양하다. 산티아고 주변 산업지대는 특히 항구로 통하는 고속도로, 공항 등과 인접하고 있어 물류 기지 용도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칠레의 산업지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모두 민간에 의해 조성,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초 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주요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다.

- Enea
 - 수도권 산업단지 중 규모가 최대이다. 산티아고 남서쪽에 총 1,100 헥타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공항/항구와 접근성이 뛰어나다.
 - 주소: Av. Américo Vespucio 0100, Pudahuel, Santiago
 - Tel: (562) 601 0601 / Fax: (562) 602 0519
 - <http://www.enea.cl>
- Parque Industrial Coronel
 - 칠레 제 7지역에 305 헥타르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지대로 공업지대, 상업지대, 창고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소: Inmobiliaria Coronel S.A., Avda. Cordillera 3633
 - Tel: (56-41) 79 04 00 / Fax: (56-41) 79 04 01
 - <http://www.parqueindustrialcoronel.cl>
- La Casa de Piedra
 - 산티아고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3만 S/M 규모로 69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소: Ismael Valdés Vergara 382 , Santiago – Chile
 - Tel: (56-2) 738 6069 / Tax: (56-2) 738 6068
 - <http://www.lacasadepiedra.cl/>
- Edificio Tecnológico de CORFO
 - 칠레 생산진흥청에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설한 센터로, 산업단지보다는 사무실/R&D센터 성격의 빌딩이며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주소: Av. Tupungato 3850, Parque Industrial Curauma, Valparaiso
 - Tel: (56-32) 257 0100
 - <http://www.corfo.cl/> (운영기관인 CORFO 홈페이지)
 - 이메일: edificiotecnologico@corfo.cl

다. 사무실 임차

사무실 임대가격은 소재지, 건축연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

참고로 산티아고 시내에서 임대가격이 가장 높은 신흥 오피스빌딩 중심가인 티 Golf, Isidora Goyenechea 지역의 최신 신축빌딩 임차가격은 2007년 12월 현재 0.6UF/m²(부가세 19%, 주차장 비용 등 별도)로,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환산할 경우 제곱미터 당 임차면적이 미화 30불에 육박하는 등 매우 비싸며, 공실률도 낮다.

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 조회하는 법

www.portalinmobiliaria.com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칠레의 부동산 검색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는 여러 중개업체에서 등록해 놓은 주택, 사무실, 공장, 토지 등의 가격 및 사진이 등재되어 있어 지역, 면적 등 원하는 조건에 맞게 부동산을 조회하여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각 물건별로 담당 중개업체의 연락처가 함께 등재되어있으므로 관심이 있을 경우 이메일, 유선상으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물건을 보고자 할 경우 중개업체와 사전에 스케 줄을 조정하여 함께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7. 노무관리

가. 고용 일반

□ 고용계약

기업 내 종업원의 최소 85%는 칠레 국적인을 고용해야 한다(종업원 25인 미만의 기업 제외). 또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칠레에서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국적이 칠레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칠레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소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또 다시 연장 시에는(또는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시) 영구고용계약으로 본다. 예를 들면, 처음 1개월 계약 후 다시 6개월 계약하였을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계약 시에는 영구계약이 된다. 따라서 영구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단 1회만 갱신해야 하며, 총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근무시간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5시간이며,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초과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 이외에 50%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부사장, 이사, 부장 등 고위직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사업장에 근무시간기록부(Libro de Asistencia, 리브로 데 아시스텐시아)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노동청에서 작업장 실태 조사를 나올 경우 근무시간 기록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노무관련 소송 발생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치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 법정휴가

근무연한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 휴가를 갖는다. 근속연수가 10년이 되면 이 후 매3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사전에 합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일전 6주, 출산 후 12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 기간에 고용주는 봉급 지불을 중단하며, 근로자는 대신 자신이 가입한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질병 혹은 사고시 의사의 진단서가 명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병가를 가질 수 있다. 병가 기간 중 고용주는 임금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의료보험사로부터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고용계약 종료, 해고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종결될 수 있다. 해고 통지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고용주는 다음같은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보상금 지불없이 해고할 수 있다.

- 증명된 부도덕적 행위, 손실 혹은 피해
- 계약서상에 명백히 금지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에 2회 연속으로 월요일에 결근할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작업장의 정상적 가동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
- 고용주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 계약서상에 명시된 작업장에서 근무를 거부할 경우
- 작업장의 안전, 정상적 작동 혹은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 혹은 업무, 혹은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파괴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계약종료확인서(Finiquito, 피니끼또)에 해고직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증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추후에 분쟁 발생 소지가 없다. 또한 기업의 구조 조정 시, 생산성이 저하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기술 수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 회사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근로자의 근무연한에 최근 1개월치 봉급을 곱한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최대 11개월치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을 경우 판사가 1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최대 퇴직금 x 2를 주어야 한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종료확인서(Finiquito, 피니끼또)에 해고직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증한 후 퇴직금을 전달한다. 해고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더 받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 쟁의발생시

쟁의 발생 시 대체근로자 투입과 관련 고용주는 대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으나, 대체 근로자 1인당 4UF(한화 12만원 상당)를 노조 측에 지급하도록 되었다.

□ 기타 형태의 고용

1) 용역계약

고용 계약에 의한 고용형태와는 별도로 자주 이용되는 민법상의 용역계약(contrato a honorario)이 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 등에 단기 용역이 필요할 경우 빈번히 이용되는 데, 이 경우 고용주는 일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노동자는 이를 수행한 후 용역료를 지급 받고 boleta de honorario(용역료 영수증)을 고용주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비, 의료보험비는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는 해당 업무만 완수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출석부 기재, 일과시간준수, 복종강요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노동계약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하청 (외주용역)

‘하청서비스’란 기업의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해 하청업체(Contratista)에 외주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청업체에서는 자사의 직원, 기술,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위탁 받은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원청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하청업체에서 급여 및 고용주세 납부 등의 의무를 지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청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 중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사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력파견과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파견근로 양산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는 업종을 특정 서비스 1 가지로 신고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서비스만을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주로 광산업계에서 하청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나. 법정 최저임금

칠레 법(2007.7.1 개정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18세~65세의 성인의 경우 월144,000페소(약US\$288)이며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최소 임금은 107,759페소(US\$216)이다. 일반 가정에 고용된 경우 최저 임금은 통상 최저 임금의 75% 수준인 108,000(US\$216) 페소 이다.

기간	비급여성 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18~65 세)	법정최저임금 (가정부)	법정최저임금 (18 세<, 65 세>)
2001.6~2002.5	70,562	105,500	79,125	81,661
2002.6~2003.6	72,326	111,200	83,400	83,703
2003.7~2004.6	75,219	115,648	86,736	87,051
2004.7~2005.6	78,050	120,000	90,000	90,327
2005.7~2006.6	82,889	127,500	95,625	95,927
2006.7~2007.6	87,697	135,000	101,250	101,491
2007.7~2008.6	92,897	144,000	108,000	107,759

자료원: 노동법

□ 참고

연도별 칠레 지니계수 통계

연도	1991	1992	1994	2000	2003
지니계수	0.532	0.536	0.53	0.571	0.55

자료원: 1991~2000 년 CEPAL 보고서, 2003 년 CIA world Fact Book

칠레 소득수준 하위 20% 평균 월소득 통계

연도	하위 20%(폐소, 월)	상위 20%(폐소, 월)
1994	65,978	821,695
1996	83,973	1,144,885
1998	96,502	1,343,734
2000	109,683	1,473,847
2003	118,562	1,524,483

자료원 : MIDEPLAN(Ministry of Planning), 2006년 기준

8. 조세제도

가. 거주자 법인소득세

1) 법인소득세율

법인,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외국회사의 지점(branch)의 소득은 다음 단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 기본세율(first category tax): 회사에 의해 소득이 취득될 때 17%
- 추가세율(additional tax): 이익이 주주 혹은 파트너에게 배당될 때(지점의 경우 해외 송금될 때) 35%

즉, 취득되고 배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17%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매월 잠정세금(Provisional Monthly Payments)을 납부한 후 4월에 정산한다. 소득이 비거주자 파트너, 비거주자 주주에 의해 인출되거나 배당될 경우 또는 해외 송금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해 35%의 추가세율(additional tax)이 적용된다. 추가세 납세의무자는 인출, 배당, 해외 송금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1단계 범주의 세금에 해당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소득세 산정의 예

세전순소득	\$100
과세소득(taxable income)	\$100
기본세금(17%)	\$17
추가세금(\$100불에 대한 35%)	\$35
세액공제(기본세금 17%)	- \$17
순추가세	\$18
총세금부담액	\$35
- 기본세금	\$17
- 추가세금	\$18

이자와 로열티 지급은 과세대상순소득에서 공제되나, 배당금(dividends)은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납부된 소득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손실은 유보이익 (retained profits)으로 상쇄되어야 하며, 차감 잔액(balance)은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하다.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다음해 4월 중에 납세해야 한다. 거주자법인이 비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2) 지방세(Municipal Duty=Commercial License)

지방세는 영업허가증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며, 자본금의 0.25~0.5% 수준이며 최대 미화 약 50만 불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es)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만, 주식, 광산, 사채 및 기타의 자산 매각으로부터 취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7%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나. 거주자 개인소득세

1) 세율

개인소득은 전세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연간조세단위(Annual Tax Unit)라 불리는 지표 단위(indexed unit)에 기초한 표에 의하여 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에서 지불한 소득세는 세액공제가 안된다.

2) 양도소득세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1) 납세의무

칠레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칠레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파트너십에 따른 외국인파트너는 그들의 참여한 대가로 얻는 이익에 대해 3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2) 원천세율

칠레기업이 비거주자 주주에 배당하는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미 납부한 기본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 개인 혹은 법인에 지급되는 상표권, 특허권, 공식, 기술적 지원, 기타 유사한 서비스 사용료에 대해서는 30%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단, 칠레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외국은행 및 기관에 지급될 경우 4%가 적용된다.

라. 본사 파견 지사(Branch)근무요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지사에서 근무하는 본사파견 지사장은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인정하여 신고 소득(주재수당)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익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의 80-90%를 환급받는다. 그러나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은 현지 채용 직원으로 간주되어 현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예외규정

칠레정부와 D.L 600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계약을 체결하고 US\$5천만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자)는 원할 경우 영업 개시해로부터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42%의 고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Taxable Profit)	1,000
1종소득세-법인세(FCT) 17%	(170)
배당이익(Distributed Profits)	830
송금세(Tax on remittance) 25%	(250)
이익금(Profits to be remitted)	580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칠레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문 홈페이지
- http://www.sii.cl/portales/inversionistas/index_ing.html

바. 기타 주요 조세

1) 부가가치세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2) 상속, 증여세

증여자가 생전에 행한 증여와 그의 사후의 재산의 이전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세율은 관련 금액과 고인의 수혜자와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3) 사회보장세

월 급여의 약 20%(연금보험 12.39%, 의료보험 7%)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한다. 현지법인 혹은 지사에서 근무하는 본사파견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부동산세

부동산의 경우 과세평가액(fiscal assessment)의 약 1.5%를 부동산세로 매년 납부해야 하며, 1년에 4회 분할 납부한다(분기별)

5) 인지세(stamp tax)

환어음, 약속어음, 기타 금전신용계약서류에 대해서는 대부기간 중 매월 0.1%에서 최고 1.2%의 인지세율이 적용된다. 단, 일람불 환어음인 경우 0.5%의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6) 광업세(Mining Activity tax)

광산 채굴업체는 연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광업세가 부과된다.

연간 구리판매량(MTF기준)	세율
12,000MTF 이하	비과세
12,000~15,000MTF	0.5%
15,000~20,000MTF	1.0%
20,000~25,000MTF	1.5%
25,000~30,000MTF	2.0%
30,000~35,000MTF	2.5%
35,000~40,000MTF	3.0%
40,000~50,000MTF	4.5%
50,000MTF 이상	5.0%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규제

칠레는 외환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D.L.600 투자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자본의 경우 들어 온 지 1년 동안은 다시 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과실송금

별도의 외환 규제가 없으므로 과실송금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개인, 법인 포함)에게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을 송금할 경우 35%의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본소득세 17%는 세액공제)

다. 현지 자금조달 방법

납세번호(RUT - Rol Unico Tributario)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은 현지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한 BO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지 금융기관의 파이낸싱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종 대출 여부는 각각의 은행이 정한 기준대로 심사를 거친 후 결정하고 있다. IT 관련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은행 대출 이외에 CORFO (칠레생산진흥청)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통과되면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상세 내역 '법인설립-투자인센티브'항목 참조)

라. 환전

칠레의 경우 은행, 환전소(Casa de Cambio, 까사 데 캄비오) 등을 통해 외환을 자유로이 환전할 수 있다. 보통 은행보다 환전소 환율이 미 달러화 기준 1-3페소 정도 높다.

마. 환율

칠레의 환율제도는 시장원리 따라 자유화되어 있다. 칠레에는 일반 달러화-페소화 환율과 별개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는 가상의 화폐단위인 UF가 있으며, 매 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1달간의 환율이 고시된다. 주로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된다. 2007년 12월 현재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US\$1=약500 칠레 페소이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칠레는 남미의 스위스를 자처하고 있으며, 인근 중남미 국가와는 다른 유럽식 선진국가라는 자부심과 차별성을 스스로 갖고 있다. 북미풍 모델보다는 유럽풍 디자인, 패션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치며 상품, 디자인, 색상 선택에 있어서도 다소 차별하고 보편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위 20%가 총수입의 약60%를 차지하고 하위 20% 계층이 총수입의 약4%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인해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1인당 GDP(1만불에 육박) 수준만으로 시장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소비자의 절대다수는 가격지향적 고객이며,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이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칠레는 한국 다음으로 한국산 자동차 비중이 높은 국가로, 수입 자동차 4대 중 1대가 한국 차량이다. 자동차 이외에 가전제품, 핸드폰을 중심으로 칠레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지하철 역,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삼성과 LG 전자의 LCD 전광판이 쉽게 눈에 띄인다. 유명브랜드가 칠레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칠레 소비자들 사이에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었다.

그러나 가전, 자동차 등의 고가 품목을 제외한 일반 소비재 제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아시아 (중국/대만 등)’의 저렴한 가격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바라는 경우가 많으며,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 심중팔구는 가격을 선택한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China를 바로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Hecho en China(Made in China)를 사용하는 대신 Hecho en R.P.C(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준말)를 쓰는 경우도 있다.

다. 유통채널

칠레는 백화점, 슈퍼마켓, 약국 등 유통채널이 대부분 체인점화, 계열화, 대형화 되어 있으며, 토종 유통업체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칠레에는 3개(Falabella, Ripley, Paris)의 유명 백화점 체인이 있으며, 이들 백화점이 단독 브랜드샵/영화관/식당가/슈퍼마켓과 함께 대형 쇼핑 콤플렉스를 이루어 성업 중이다. 칠레의 유통시장은 3개 대형유통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용산전자상가 등 별도의 전자 전문상가가 없어 백화점과 이들 백화점 계열의 대형마트 체인을 통한 유통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재 품목의 경우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들 대형업체와 직접 컨택하거나, 대형업체 납품 바이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산층 이상 소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부근의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체인 등을 이용하며, 고가 제품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중앙역(Estacion Central), 빠뜨로나또(주로 의류, 잡화 품목 밀집) 등의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

2. 물가정보

□ 도시 32 : 산티아고(칠레)			- 환율 : US\$1 = Peso5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750.0	7.1	구두(1켤레, 소가죽)	90.0
1.2	넥타이(1개, 실크100%)	70.0	7.2	치약(100g, 1개)	1.70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35.0	7.3	칫솔(Oral B, 1개)	3.58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4.0	7.4	1회용면도기(2개들이 1세트)	2.20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550.0	7.5	건전지(에너지라이저 1세트, 1.5V AA)	4.0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3.0	7.6	화장지(1통, 300매)	6.29
1.7	청바지(Levi's)	70.0	7.7	비누(1개)	0.50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15.98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0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9.38	8.2	볼펜(12개)	3.5
2.3	닭고기(1KG, 생닭)	5.98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5
2.4	쌀(1KG, Short Grain)	1.7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3.0
2.5	밀가루(1KG)	1.79	8.5	휴대폰(범용형)	100
2.6	설탕(1KG, 백설탕)	0.80	8.6	휴대폰사용료 (1개월, 기본, 250분 월정액)	38
2.7	계란(12개)	2.00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38
2.8	감자(1KG, 현지산)	1.00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MB)	55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3.80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6,000
3.1	고추장(1Kg)	10	9.2	엔진오일(1L)	30
3.2	된장(1Kg)	8	9.3	휘발유(1L)	1.3
3.3	라면(1개)	1.50	9.4	자동차등록비(2,000cc)	70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7.00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850
3.5	불고기(1인분, 200g)	12.00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0.00	10.1	지하철(1구간)	0.76
3.7	김치찌개(1인분)	7.00	10.2	시내버스(1구간)	0.76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4
4.1	햄버거(1개)	3.0	10.4	택시(추가요금/Km)	0.9
4.2	피자(피자헛, Family size 1판)	15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50	11.1	전화개통비(CTC 기준)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70
4.4	맥주(버드와이저 1캔, 355ml)	0.88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33
4.5	담배(수입산, 1갑)	2.60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10
4.6	위스키(시바스리갈 1병, 750ml)	35.98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6
4.7	커피(1병, 175g)	4.46	11.5	국제전화(인터넷 117) (현지-서울, 3분, 평상)	0.9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5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1,0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78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0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100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5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2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96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1.41
6.1	TV(삼성 26인치 LCD)	700.0			
6.2	VTR(6헤드, 범용)-가의 DVD로 대체	-			
6.3	DVD Player(LG, Divx 겸용)	56.38			
6.4	전자레인지	64.0			
6.5	냉장고(삼성, 560L, 양문형)	1,000			
6.6	에어컨(2800W급, 가정용)	560.00			

□ 도시 32 : 산티아고(칠레)			- 환율 : US\$1 = Peso5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약5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288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648.89	18.2	상여금(월급여대비%,연간)	의무아님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첫째 8,500 둘째 8,300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급여대비%,연간)	약20%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2,81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2,81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26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2,810	18.6	연간국경일	14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74.77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15일
13.2	골프장회원권 - La Dehesa (18홀, 매매불가, 종신 아님)	입회비 52,000 분기별 5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5시간
13.3	골프공(1타)	33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00	19.1	법정최저자금	제한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4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변호사무소 따라 상이)	3,0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6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세제혜택(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Santa Maria병원) (4인 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555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7.0 내외
14.2	병원진료비(Santa Maria병원)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35			
14.3	병원진료비(Santa Maria병원)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10			
14.4	치과(스켈링, 1회)	60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1.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18.3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4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5.6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 1박, 시내중심지)	19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 1박, 시내중심지)	13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 1박, 시내중심지)	140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 1박, 시내중심지)	80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0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1,400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450~600			

3. 바이어 발굴

바이어 발굴 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산업협회나 유관 기관에서 발간한 업종별 디렉토리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칠레에는 영문 디렉토리나 관련 웹사이트가 거의 없어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KOTRA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료 조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책자, 디렉토리

- Directorio Industrial de Chile (칠레산업별 업체디렉토리)
 - 분야별 업체리스트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책자는 US\$ 90, CD는 US\$40불 정도 가격이다. 칠레상공연합회(www.sofofa.cl)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다.
- Directorio Nacional Empresas y Ejecutivos
 - iTV사에서 매년 정기 발행하는 디렉토리로 칠레 주요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Las Amarillas de Publiguias
 - CTC Chile사가 무료로 배포하는 업종별 Yellow Page 이다 (www.amrillas.cl).
- Directorio Forestal de Chile
 - 2년마다 발행되며 칠레 산림 현황, 생산 제품, 관련업체들에 대한 정보 자세하게 수록된다.
- Directorio de la Salud en Chile
 - 칠레 건강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 및 생산 제품에 대한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 Directorio de Acuicultura y Pesca de Chile
 - 매년 발행되며 칠레 수산업 부문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관련 업체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2) 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발굴

칠레는 대규모 국제 박람회가 많지는 않으나, 칠레 유망성장산업과 관련된 전문전시회 참가 시 칠레 및 인근국 바이어발굴이 효율적이다. 한국기업이 참가할 만한 주요 박람회로는 광업박람회, 건설박람회, 항공박람회, 해양박람회 등이다.

- 광업박람회 (EXPOMIN)
 - 격년제로 실시되며 광산기계, 소모품, 트럭, 각종 공구, 소모품, 관련서비스가 전시된다. 중남미 최대 규모의 광업박람회로 인근국 바이어들도 대거 참여하여, 기간 중에는 산티아고 시내의 호텔이 모두 찰 정도로 관련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박람회이다. 광산업관련 제품을 칠레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의 바이어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www.expomin.cl

- 항공우주산업박람회 (FIDAE)
 - 격년제로 실시되며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반적인 기술, 제품, 장비를 전시한다. 광업 박람회와 더불어 칠레 주요 박람회로 꼽힌다.
 - www.fidae.cl
- 건축, 건설박람회 (EDIFICA – Expo Hormigon ICH)
 - 매년 실시되며 건축, 건설 관련 장비, 기계/기술, 서비스/건축자재, 소모품이 전시된다.
 - www.edifica.cl

전시회 일정은 www.fisa.cl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거래선 발굴

- www.chilenet.cl
 - 산업분야별 기업 디렉토리로 각 기업의 전화, 팩스, 홈페이지, 종업원수, 수출입금액, 수출입품목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 www.chilewindows.com
 - 산업별, 도시별 업체 검색이 매우 용이하다.
- www.salmonchile.cl
 - 칠레 연어 생산 회사들의 모임으로써 연어 생산 및 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www.chileinfo.cl
 - Prochile(수출진흥기관)이 운영하며 분야별 수출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품목 또는 HS 코드로 품목별 수출업체를 알 수 있으며 수출액, 수출대상국의 정보를 제공한다.
- www.buykorea.org
 - 칠레바이어들의 한국과의 거래선 발굴요청 인콰이어리는 바이코리아 사이트에 수시로 게재되고 있다. 또는 산티아고 무역관 홈페이지 인콰이어리 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www.lexisnexis.cl
 - 회사고유번호, 원산지, 수출입동향, 경쟁업체, 바이어 명단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유료, 스페인어 전용)
- www.amarilla.cl
 - 품목별, 회사별, 상표별 검색이 매우 용이하다.
- www.blancas.cl
 - 회사명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 바이어 발굴 대행 유료서비스

KOTRA 해외 무역관에서는 해당 품목의 바이어 발굴 및 관심도를 조사하여 송부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OTRA 본사, 또는 기업 소재지역의 관할 지방무역관에 “바이어 발굴 조사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약속

기업이나 기관 방문 시 반드시 사전 약속을 해두어야 하며, 사전 약속이 컨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 전일 또는 당일에 다시 한 번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 약속을 잡을 때는 비서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칠레 비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최대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서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경우 상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원천봉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2 월 3 일은 비서의 날로, 칠레 기업들은 거래처의 비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꽃이나 작은 선물을 돌리기도 한다.

외부에서 만나기로 했을 경우, 바이어의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파악해두자. 근무시간 이후의 약속이 어긋났을 때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봐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비즈니스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바이어들은 전형적인 “남미기질”을 드러내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다가 계속 전화를 걸면 그 때서야 억지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못하겠노라고 답하기도 하며,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식사

칠레인들은 특별히 기피하는 음식이 없으므로 메뉴 선정 시 개인의 식성 이외에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대표적인 와인 산지답게 식사 시간에 와인이 빠지는 경우는 드물므로 특히 손님을 대접할 경우에는 반드시 와인을 준비하도록 한다. 칠레에서 와인은 물이나 음료수처럼 흔한 개념이므로 고가 제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나, 대신 칠레산 와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한국에 칠레산 와인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이야기나 부산 APEC 정상회담 때 칠레산 와인이 건배주로 사용된 등의 이야기 거리는 식사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1 시~3 시 정도이며, 대부분의 식당이 오후 1 시부터 손님을 받기 시작해서 4 시경 영업을 마쳤다가 오후 7 시 30 분 정도 되면 저녁 영업을 시작한다. 저녁 식사는 보통 오후 9~10 시에 시작된다. 칠레인들은 전식-메인요리-후식의 순서로 천천히 식사를 하므로, 저녁식사의 경우 특히 2 시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먹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3) 선물

2006 년 칠레의 국가 청렴도는 세계 20 위(우리나라 43 위)로, 소수 파워엘리트 정치를 지향해 온 까닭에 중남미 국가 중 공무원 부패도가 가장 낮다. 관공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뇌물관행이 거의 없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 하려 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정도를 밟되, 일이 마무리 되고 난 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작은 선물을 한다면 개인적인 친분을 맺게 되어 향후 업무 추진 시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서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핸드폰 줄, 액정클리너 같은 물건은 값도 저렴하고 출장 시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칠레에서는 흔하지 않은 물건이라 선물을 받으면 좋아한다. 이 외에 바이어와 상담 시 한국 사탕, 녹차 등을 제공하면 딱딱한 상담 분위기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상 관련 제품이나 자개로 된 명함집 같은 선물도 매우 좋아하지만, 이러한 선물은 고가이므로 처음 만날 때 선물하기 보다는 거래가 무르익어 가는 단계나, 개인적인 친분이 형성되었을 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인사

남성은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며, 친해질 경우 등을 살짝 두드리면서 하는 가벼운 포옹도 가능하다. 여성과 인사할 때는 가볍게 포옹을 하며 뺨을 맞대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다. 처음 만나는 동양인에게는 문화 차이를 고려해 악수를 청하기도 하나, 칠레 여성이 이러한 인사법을 청했는데 피하면서 손만 내밀 경우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다소 어색하더라도 현지식으로 가볍게 볼에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대방을 불필요할 정도로 세게 끌어안거나 정말 볼에 입을 맞추는 경우 실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호칭은 남자의 경우 성 앞에 세뇨르(Sr.), 여성의 경우 세뇨리따(Srta.)를 붙이면 된다. 기혼여성으로 생각하여 세노라(Sra.)라고 했는데 미혼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세뇨리따의 경우 원래 미혼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나, 기혼 여성에 대해 세뇨리 따라고 부르더라도 크게 실례가 되지 않는다.

5) 복장

대기업 사무직의 경우는 근무 시 정장을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 노타이, 면바지 차림의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편이다. 중대한 미팅이나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상담을 나가는 경우에도 편안한 차림새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문화가 그러하므로, 상대방이 상담 약속에 정장을 하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쾌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문화이고, 처음 바이어를 만나는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정장 차림으로 나가서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정부부처나 기관, 대기업을 방문할 때나 공식 행사시에는 칠레인들도 차림새에 매우 신경을 써서,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칠레인과 대화할 때 가급적 정치 이야기를 삼가라. 칠레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이 평화적으로 들어선 최초의 국가지만, 이후 피노체트에 의해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장기간의 군부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우리나라에서는 숙청, 민간인 학살, 부패권력, 군사독재 등 피노체트의 부정적인 면이 주로 부각되어 있고,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망명을 거부하고 자살을 택한 공산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애뜻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피노체트 집권 후 칠레가 자유 시장경제 정책 수행을 통해 안정적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칠레인(주로 공산주의 반대론자)들도 많이 있고, 개인의 평가가 많이 엇갈리므로 상대방에게 피노체트에 대한 평가를 묻지 않는 것이 좋다. 무거운 대화주제인데다가, 정확한 지식이나 칠레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설βολ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칠레인의 피부색은 밝은 톤이며, 흑인과의 혼혈은 거의 없다. 칠레에 처음 오는 출장자들이 중미지역의 몰라토(흑인과 백인의 혼혈)를 연상하고 칠레에 왔다가 흑인이 하나도 없다면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칠레인은 대부분 원주민(마푸체)과 백인간의 혼혈이 대부분이며, 순수 백인은 드물다. 하지만 칠레인들은 원주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에게 원주민의 피가 섞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바이어와 상담할 때 상대방이 혼혈 같아 보인다고 해서 메스티소(원주민과 백인의 혼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매우 불쾌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다. 상담/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칠레는 인구 약 1,600 만의 비교적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로 소량 다품종 주문이 보편적이다. 한국 기업과 상담이나 거래 경험이 있는 칠레 바이어들에 따르면 제품을 구매하고 싶기는 하지만 한국 수출업체에서 칠레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기준의 최소주문수량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해서 상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첫 거래 규모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다 보면 거래물량을 점점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칠레는 40 여 개국과 FTA 를 맺고 있는 완전 개방 자유무역국가로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다른 업체와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싶어 하며, 처음부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바이어의 제품 유통능력, 대고객 서비스 능력 등 사전 검증을 반드시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칠레에서 만났을 때는 당장이라도 주문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귀국하고 보니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자. 귀국하는 즉시 안부인사와 함께 상담 내용 요약, 바이어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추가 정보 등을 메일, 팩스 등으로 송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단 자료를 보낸 후에는 1~2 주 정도 바이어가 검토할 시간을 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료를 보내자마자 하루가 멀다고 바이어의 답변이나 결정을 재촉하는 한국 기업의 열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기초적이면서도 한국 업체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로 이메일 계정의 발송자명 설정을 들 수 있다. 바이어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무역관으로 바이어가 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바이어를 접촉해보면 대부분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다. 이는 메일 발송자 이름이 한글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 바이어의 메일박스에는 발신자명에 한글 이름대신 “???”라고 표시되므로 이를 스팸으로 간주하여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해버리기 때문이다. 메일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 또는 기본 정보 수정에서 발신자명 변경이 가능하니 반드시 메일 발신자 정보에서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어 두자. 가급적 바이어가 알아보기 쉽게 개인 명의보다는 회사명으로, 또는 회사명과 개인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좋다.

칠레인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는 관계로 외국어에 특히 약하다. 또한 다른 스페인어 국가들에 비해 말도 빠르고, 발음하는 법도 조금 달라 애로 사항이 많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는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부득이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경제규모가 작고 기술수준도 취약하지만, 중남미 최고의 IT강국, 정치/경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중남미의 유럽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칠레인과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칠레를 여느 중남미 국가로 일반화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몹시 불쾌해하며, 더 이상 대화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영어 인프라 절대적 부족 - 현지어 구사해야 업무처리 빨라

칠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우며, 영어 구사 인력 채용은 더욱 어렵다. 기업체 홈페이지도 대부분 스페인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 구사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바이어 발굴과정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나. 늦은 업무처리

한국인의 “빨리빨리” 근성으로 칠레시장에 진출할 경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칠레에서 바이어와 약속한 내용에 대해 한국에 돌아가 확인 메일을 보내면 감감 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바이어에게 연락해보면 한국 업체에서 너무 재촉한다며 불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칠레는 의사결정과 행정절차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다. 현지 실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불안감

어렵게 현지의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했다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투자기회가 왔을 때, 현지 실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주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중남미권의 경우 무지에서 오는 불안감이 큰 데다가, 칠레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남미가 정치/경제가 불안정한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다. 수출보험공사(www.keic.or.kr)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수출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외공사보험, 해외산업투자보험, 수출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이견산업 - FTA 이용, 중남미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국내 목재가공업체인 이견산업의 칠레 투자법인인 이견 Lautaro 사는 일찍이 칠레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원을 확보하였으며, 칠레를 제조기지로 삼아 미국, 유럽, 멕시코 등지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견산업은 Lautaro 사 인수 후 설비 개선과 증설을 계속하며 공격적인 증산정책을 펴 1997 년 칠레진출 4 년 만에 합판업체 3 위로 올라섰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합판 제조규모는 한국 본사의 생산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견산업은 국내 목재산업이 수입원목에만 의존 하고 있던 1980 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인 국외 원목개발 및 해외 생산기지 진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 원자재난 가중으로 국내 목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도 타격 없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견 Lautaro 는 1998 년 한국이 IMF 를 맞으면서 제품 주 구매원이었던 본사와의 거래가 급감하여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제 3 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선 발굴하여 한국 수출 일변도를 탈피함으로써 위기 를 돌파했으며, 한국이 IMF 를 극복한 이후에도 대한 수출보다는 미국, 멕시코, 유럽시장 등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칠레가 전 세계 48 개국과 FTA 를 체결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은 이견 Lautaro 사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수요가 급감하여 전반적으로 목재 가공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기는 하나, 다시 한 번 신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칠레에서는 주거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증 발급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집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최근 경기활성화 및 건축 붐으로 중고급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 주택 공급은 원활한 편이다. 중개업체를 통해 집(아파트,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보통 월세의 1/2을 중개료로 지불해야 한다(나머지 1/2은 임차인이 부담).

집계약시 계약서 유첨물로 인벤토리(집의 상태를 기록한 문서로 경우에 따라 사진도 포함)가 포함되며, 통상 1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한국지상사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은 Las Condes, Vitacura, Lo Barnechea 지역 이다. 과거에는 Las Condes, Vitacura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국인 학교인 Nido de Aguila가 위치한 Lo Barnechea 지역에 아파트 및 고급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자녀의 통학에 편리한 이 지역으로 이사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아파트보다 주택을 선호하는 편이며, 치안 유지를 위해 콘도미니엄 형식으로 된 단지형 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칠레 거주 외국인 증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집 값 이 크게 상승하였다.

주택 임차시에는 임차료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나. 행정절차

최초 입국 시 보통 1년의 임시거주비자를 받는다. 비자 발급 후 30일 이내에 경찰서의 외국인 관리국(Policia Internacional)에 가서 신고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등기소(Servicio de Registro Civil e Identificación)에 신청하면 외국인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1년이 되면 비자 만기일 30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 여권 원본 및 사진 있는 부분, 비자가 있는 부분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증명서
- 마지막 3개월간의 개인 소득세 납부 증명서
- 위임장
- 가족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 기타 이민국 요구서류

서류가 이상 없이 접수되면 외국인등록증 이면에 수속 중이란 뜻의 En Tramite 라는 도장을 찍어주며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까지 (통상 2-3개월 소요) 비자를 대신한다.

다. 계좌 개설

주민등록증, 비자, 집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칠레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들은 아직도 상당히 고압적 자세를 갖고 있으며, 계좌개설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 특히, 회사원인 경우 회사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회사에서 확인한 급여명세서 등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좌 개설 시에는 보통 은행에서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직원이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까지 확인한다.

칠레에서는 수표사용이 발달돼 있어서 수표책을 신청,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표는 미 달러화, 페소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또, 요즘에는 현금카드도 많이 사용하므로 같이 신청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매달 은행에서 일정액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인출해가며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다. 계좌 유지 수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다.

달러계좌를 개설하려면 페소화 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기간(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은행 계좌개설 담당자와 잘 협의만 하면 동시에 개설해주므로 설득해보는 것이 좋다. 칠레에서는 수표나 현금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약 151페소(약3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신 ATM기기를 이용한 타행 출금시에도 세금 이외에 별도 은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라. 전화

칠레의 경우 유선전화, 인터넷 등은 신청 할 경우 대략 1주일 내에 설치된다(통신사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다만, 신분증이 발급된 이후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전화의 경우는 할인 경쟁이 치열하므로 특정 국제전화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경우 할인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의 인터넷전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내 계좌로 통신비를 결제하면서(1개월에 약 46불 선) 한국과 미국으로는 무료로 무제한 통화(단 1회 최고 13분까지 통화 가능. 13분 초과 후 재다이얼로 계속 통화 연장 가능)를 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므로, 한국과의 통화량이 많을 경우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휴대폰은 선불제(Prepago)과 후불제(Plan) 두 종류가 있으며, 선불제의 경우 기계 값을 지불하고 전화기를 구입한 후 SIM카드에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므로 언제든지 개통이 가능하나, 후불제의 경우 신분증, 은행 구좌 보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개인 명의의 수표 사본 등)를 제시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선불제의 요금이 후불제에 비해 더 비싼 편이지만, 선불제 사용자가 더 많다. GSM방식으로 중남미지역에서 이동할 경우 자동 로밍되며 요금이 부과되므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핸드폰을 꺼두면 된다.

마. 비품구입

칠레는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대부분의 공산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로 제품 평균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고급품의 경우 수요가 적고 늘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전자제품/자동차 등의 경우 인근 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칠레에는 아직 팩토리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등의 유통형태가 발달되지 않아 상품구입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전문점 등을 통해 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동일한 모델이라도 백화점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꼼꼼히 가격비교를 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비품 구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구 구입이다. 주요 사무용가구 브랜드인 Bash, Fernando Meier 등의 제품 가격은 한국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비싼 편이다. 그러므로 사무용 가구 소요량이 많고 고급 가구 설치를 희망할 경우는 한국에서 비품을 구입해서 발송하는 비용(운송, 부가세, 통관비 포함)과 현지 구입 가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San Pablo 거리에 가면 중저가 사무용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밀집해있다.

바. 자동차구입

칠레는 환경오염 문제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 시세가 타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귀국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름값이 비싼 편으로 1600cc 이하의 소형차가 선호되며, 중대형에 비해 이들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길거리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산티아고 시내에는 도로사정이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산악지형이 많고 지방으로 가면 도로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잦은 지방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4x4 차량을 구입 하는 것이 좋다.

사. 자녀 교육여건

칠레의 주요 외국인 학교는 Nido de Aguilas로 주재원 자녀 대부분이 Nido de Aguilas 에 다니고 있다. Nido de Aguilas (www.nido.cl)는 아메리칸 스쿨로 졸업생들이 아이비 리그를 포함한 미국 대학으로도 많이 진학하고 있지만 학비가 매우 비싼 편이다.(연 12,000불 수준, 기부금 별도)

칠레의 교육제도는 유아(치)원(0세-5세), 초등학교(6세-13세), 중고등학교(14세-17세), 대학교 등으로 구성되며, 진학률은 유아(치)원 81%, 초등학교100%, 중고등학교 75%, 대학교 50% 등으로 문맹률이 5%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공립의 경우)이다. 그러나 공교육 수준이 높지는 않다.

칠레의 유명 대학으로는 국립대학인 Universidad de Chile와 Universidad Catolica를 꼽을 수 있다. 2개 명문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이 용이한 편이나 수업과정이 엄격하고 논문 심사가 까다로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료 후 논문 통과까지 1~2년의 추가 기간을 할애하고 있다.

아. 병원

산티아고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Clinica las Condes ([www. Clinicalascondes.cl](http://www.Clinicalascondes.cl)) 와 Clinica Alemana (www.alemana.cl)로 최첨단 의료장비, 고급 의료진,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진료비가 매우 비싸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거래 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Plan별로 지정 병원과 할인폭, 의료보험료가 달라진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회원카드를 발급해주며, 병원 예약시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사와 계약한(칠레에서는 ‘콘베니오가 있다’고 표현)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해야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처음 가면 보험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지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보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계약은 병원 진료비 할인에 관한 사항이며, 약품 구입시 할인을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약품 구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 처방전에 따른 구입에 대해 특정 약국에서 70~90%의 약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의료보험사로는 Banmedica, ING, Colmena 등이 있다.

자. 국외여행

칠레에서 자녀를 동반하고 국외여행을 할 경우 대사관에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할 것을 권한다. 미성년 자녀 동반 출국시 이민국에서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가족증명서’는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며, 비용은 무료이고 가족 구성원 전원의 여권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해가면 발급이 빠르고, 증빙이 없을 경우 호주의 주민번호, 호적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호주인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동반하고 출국할 경우 ‘호주가 자녀를 데리고 여행할 책임을 위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지참해야 한다.

최근 출입국 사무소에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출국자 가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항공스케줄을 변경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남북으로 4,230Km나 뻗어있는 칠레는 위도에 따라 아열대, 사막, 지중해성, 온대, 한랭기후 등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며, 안데스산맥과 흙볼트 한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칠레 북부는 사막 및 아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 16℃를 유지하며, 남부지역은 한랭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며 춥고 장마진 기후가 특징이다. 중부지역에 위치한 수도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사막기후로 사계절이 있으며, 여름에는 고온 건조, 겨울에는 온난 다습의 특성을 가진다.

여름철에는 거의 비가오지 않으나, 겨울(6,7,8월)에 집중적으로 강수량이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집중 호우의 수준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우산 없이도 다닐 수 있을만한 수준이다.) 또한,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며, 하루 기온 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기도 하여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다. 산티아고 지역은 눈이 거의 내리지 않지만 체감온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산티아고- 해발 540m 연중 기후표

(단위 : °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29	29	27	23	18	14	15	17	19	22	26	28
최저	12	11	9	7	5	3	3	4	6	7	9	11

2) 출장시 추천복장**□ 옷차림 일반**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정장 차림이 좋지만, 평소에는 계절 특성에 맞는 간편한 복장을 하고 다니면 된다. 칠레인들은 옷차림이 수수한 편이며, 요란한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계절적 차이로 인해 북반구에서 유행했던 옷들이 한 시즌 늦게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겨울철 흐린 날을 제외하면 일년 내내 햇빛이 강한 편이므로 자외선차단제와 선글라스는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산티아고는 동으로는 안데스산맥, 서로는 해안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가로막고 있는 분지 지형 때문에 공해가 심해 세계에서 가장 공기 나쁜 도시로 꼽힌다. 6~11 월 의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는 공해주의보, 경보가 종종 발동돼 차량운행이 제한 (지정 번호 운행 휴무)될 정도로 공해가 심하므로 기관지가 약한 경우 마스크를 준비한다.

□ 겨울

칠레의 겨울은 6~8월로써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이다. 겨울 평균 산티아고 기온은 최고 15-19도, 최저 3-6도 이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드물지만 산맥에서 불어 오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겨울에 출장 시(산티 아고)에는 한국의 겨울과 마찬가지로 두껍고 따뜻한 옷을 준비해 오는 것을 권장한다.

□ 여름

칠레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과는 달리 건조하다. 그러나 햇볕이 상당히 강렬하고 따갑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그을리며, 심한 햇빛으로 인해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끼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크림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칠레 여름은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상당히 시원하고, 또한 일교차 차이가 심해 아침, 저녁에는 날씨가 선선하다. 따라서 복장은 시원한 여름 정장을 추천하며 이와 더불어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 저녁을 대비해 긴 소매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나. 시차/근무시간**1) 시 차**

한국과는 13시간의 시차가 있으나, 여름 서머타임 적용 시(10월 3번째 토요일- 3월 3번째 토요일)에는 12시간의 시차가 난다.

2) 근무시간

주5일 근무제이며, 일반 직장 및 관공서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09:00-18:00 이다.

단, 은행의 경우는 09:00-14:00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휴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슈퍼, 백화점의 경우 영업시간은 통상 10:00-22:00 (백화점은 20:00)이며,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요일, 공휴일에도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을 하지만, 부활절, 근로자의 날, 크리스마스 등에는 휴무한다. 일반 직장의 경우 점심시간은 보통 1시부터 2시반(혹은 3시)까지 이므로 동 시간에는 미팅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 도량형

주요 단위

주요단위	단위
거리, 범위	미터법(mm, cm, km, m ² 등)
무게	킬로법(g, kg, t 등)
온도	섭씨(°C)
전기규격	220V, 50Hz
TV / Video 방식	NTSC/VHS

1) 전기 규격

전기규격은 우리 나라와 동일한 220볼트이지만 소켓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3개의 다리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또한 한국 소켓보다 다리보다 가늘다. 따라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가전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점이나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한 개당 500페소(한화 1000원) 정도이다. 대부분의 한국 전기전자제품은 현지에서 사용가능하나, 한국과 Hz가 다른 관계로 민감한 제품은 고장날 가능성도 있다.

2) 숫자표시

우리나라의 경우 천 단위는(,) 그리고 소수점은(.)로 표시하나 칠레를 비롯한 남미에서는 반대로 천 단위는(.) 그리고 소수점은 (,)로 표시함을 유의해야 한다.

○ 23,215.08 → 스페인어식 표기 23.215,08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리나라는 칠레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단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단기(90일 이내)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칠레 입국이 가능하다. 단, 취업, 유학, 동거 등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주한 칠레 대사관에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와 캐나다 시민권 자에게는 각 각 US\$100, US\$50의 입국세를 징수하고 있다. 사증 면제와 별도로 항공사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없으면 탑승을 금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칠레 입국을 위해 경유국(미국, 호주 등)에서 환승 체크인을 할 때 항공사 직원이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귀국편 항공권이 없을 경우 이유와 무관하게 탑승 체크인을 해주지 않는 편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돌아오는 항공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환불 가능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후 칠레에 입국하여 취소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2) 비자의 종류

☐ 관광(Turista)

관광, 방문목적, 최장 90일까지 부여 1회 연장 가능.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의 방문시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 거주비자(Residente)

- 공무거주(Residente Oficial): 외교관,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에게 발급
- 임시거주(Residente Temporario): 상용, 친척 초청, 취재, 종교 등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재시 부여(지·상사 주재원도 최초 입국 시 1년간 임시거주비자를 받음)
- 유학거주(Residente Estudiante): 유학생에게 발급
- 계약거주(Residente Sujeto a Contrato): 고용계약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발급, 갱신 가능

☐ 영주(Permanencia Definitiva)

전기 “나”항 거주사증 소지자가 최소 1년 이상 계속 주재국에 거주한 후 신청시 심사 후 영주사증 발급. 영주권 신청자는 칠레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활동(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 주한칠레대사관 연락처

-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5-5번지, 고려 대연각 타워 1801호
- 주한칠레대사관에는 칠레의 수출진흥기관인 Prochile도 함께 입주하고 있음
- 전화번호: 02)779-2610
- FAX: 02)779-2615

☐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Alcan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 전화번호: (+56 2) 228 4214
- Fax : (+56 2) 206 2355

☐ 출입국수속 및 세관신고

입국시 소정의 입국신청서 및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동식물 및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불필요하며, 공항세(tasa de embarque)는 국제선의 경우 미화 30불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 공항-시내간 교통편

칠레에 입국 후, 산티아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택시, 공항버스, 합승미니버스 TRANSVIP(www.transvip.net) 등이 있다.

공항에서 산티아고 시내로 오는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의 경우 약 1만2천 페소(한화 25,000원) 수준이며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경우 25-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단, 산티아고 택시는 거의 무보험이며,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종종 바가지를 씌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Costanera)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40분 이상 소요되므로, 고속도로 이용을 요청해야 한다.

일반 택시요금 1만2천 페소는 고속도로 이용을 고려한 가격이므로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공항 주차장까지 기사를 따라 나가서 택시에 탑승한다. 공항 택시(Taxi Oficial)의 경우 약 1만5천 페소(한화 약 30,000원) 수준으로 일반 택시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비교적 택시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안전성이 더 높다. 출국장 입구에 있는 공항택시 카운터에 미리 요금을 지불한 후 공항 청사 출구에서 바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TRANSVIP 합승미니버스는 시내까지 US\$ 6-7 불 정도를 받는다. 여러 명이 타고 오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숙소를 경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대중 교통으로는 공항에서 PAJARITO 지하철 역까지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있는데 US\$ 2~3불로 저렴하다. PAJARITO역에서 시내까지는 1호선을 타고 들어오면 된다.

마. 통화/환전

1) 통화단위

화폐단위는 페소(PESO)이며, \$로 표시하므로 미 달러(US\$)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만, 1만, 5천, 2천, 1천 페소권 지폐가 있으며, 주화로는 500, 100, 50, 10, 5, 1 페소가 있다.

주화



지폐



1,000 페소



2,000 페소



5,000 페소



10,000 페소



20,000 페소

2) 환율

칠레 페소화 환율은 2002년 초에 미화 1불당 650 페소 선을 기록하며 안정되었으나, 미국-이라크 전쟁 등의 악재가 불어 닥치면서 2003년 2월, 1불당 750 페소까지 반등했다가 2004년 연평균 609페소/US\$1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는 국제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7년 12월 현재, 미화 1불당 500페소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 환율은 칠레 1페소 당 2원 수준이다. (1:2 비율)

3) 환율제도

자유 변동 환율제로 중앙은행이 매일 기준환율을 공시하고 있다. 공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중앙은행의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은행간에 합의 되며 비공식 시장환율은 정부의 개입 없이 외환수급에 의해 외환시세가 결정된다.

칠레에서는 미달러 환율 이외에 매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UF(Unidad de Fomento) 라는 가상환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동산계약 등에 동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4) 환전

환전은 공항, 은행, 환전소, 호텔 등지에서 항상 가능한데, 은행의 경우 09:00 - 14:00 까지만 운영하며, 해당 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만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내 곳곳에 있는 환전소 “까사 데 캄비오”(Casa de Cambio)에서는 은행 및 호텔, 그리고 공항환전소 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 준다.

5) 신용카드

호텔, 상가, 식당, 주유소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카드 복제 위험이 있으므로 카드결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점원이 테이블로 단말기를 가져오면 앉은 자리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식당도 많이 있다. 칠레는 인터넷 보안환경이 우리나라처럼 발달하지 못해 인증서, 보안키 등의 보호수단이 취약하므로 가급적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종 카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신용카드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유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한국과 칠레간에는 아직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칠레로 오가는 루트는 첫째 미국(LA, 뉴욕)을 거쳐 오는 방법과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를 거쳐 오는 방법, 그리고 유럽(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거쳐서 브라질을 경유하여 오는 방법 등 3가지 루트가 있으나 주로 LA를 거쳐서 오는 루트가 많이 애용된다.

LA를 거쳐서 오는 경우, 대부분 아시아나 혹은 대한 항공을 통해 LA에 도착하여 LA에서 LanChile(칠레항공)를 통해 칠레에 입국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LanChile와 LA-산티아고 구간을 코드쉐어하고 있어 KE로 코드를 받을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산티아고까지 일괄 체크인이 되지 않으며, 경유국 항공 카운터에서 다시 체크인해야 한다.

주요 취항 항공사로는 LAN, Delta, American Airline, Aeromexico, Iberia, Copa, TACA, Gol 등이 있다.

2) 국내교통

□ 택시

산티아고에는 약 5만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우리나라처럼 손쉽게 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00페소(한화 400원)에 주행거리 200미터(혹은 정체 시간 1분당)당 80, 90, 120, 150페소 등으로 주행 요금을 택시운전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즉, 택시가 많을 경우에는 80페소, 늦은 밤과 같이 택시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120페소, 150페소 표지를 차창 앞에 붙이고 다닌다.

택시 기사가 주행 요금을 정하는 일반 택시 이외에도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콜택시(칠레에서는 Radio Taxi) 있다. 콜택시의 경우 거리에 관계 없이 최저 요금은 1,000 페소(한화 2,000원)인데, 택시 회사로 전화를 하면 보통 20분 내에 도착한다.

□ 시내 대중 교통

산티아고에는 동서를 잇는 노선과 남북을 잇는 노선 2개 등 현재 5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운행간격이 짧아 매우 편하며, 요금은 3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학생, 노약자 대상 130페소(한화 260원), 러시아워시간 420페소(840원), 보통시간 380페소(760원)로 차별화 되어 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BIP이라는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카드 가격은 1,100페소(2,200원)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거리 개념이 아니므로 45분 내외에 환승할 경우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산티아고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방법을 검색할 수 있다. www.transantiagoinforma.cl 에서 “Planifica tu viaje”라는 메뉴에서 출발지, 목적지, 선호 교통수단 등을 입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해당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산티아고시 지하철 노선도



3) 국제통신

민간회사인 Telefonica, Entel Chile, VTR, Compania de Telefonos Manquehue들이 통신 및 전화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직통 국제전화, TLC 및 FAX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

칠레의 국제전화요금은 상당히 비쌌지만 현재 시장이 개방된 이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급속히 요금이 인하되고 있다. 보통 국제전화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데, 현재 10분간 서울과 통화할 경우 할인요금(정상요금의 70% 할인) 적용시 약 2,200페소 (4.2불) 정도 요금이 나온다. 인터넷 전화 업체들이 생기면서 국제전화 요금이 더욱 인하되어 일례로 117(www.117.cl)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국까지 분당 149페소로, 10분간 통화할 경우 1,490페소(2.8불)의 저렴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화품질이 일반 업체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국제전화 통화량이 많을 경우 서비스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유리한 약정요금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한국의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내요금 수준으로 인터넷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와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47불 정도의 월정액으로 한국으로 무한정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다(한국으로 서비스 신청).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접속번호+0-82-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예시) 117 캐리어를 이용하여 서울 333-3333으로 전화할 경우 117-0-82-2-333-3333

칠레 출장자들은 호텔의 전화요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하여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Hablemas 카드를 이용할 경우 2,000페소 (한화 약 3,700원)로 한국과 28분간 통화가 가능하다.

칠레에서 몇 일간 머물면서 전화를 사용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카드 충전식 선불 (Prepago, 뽀레빠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저렴한 구형모델의 경우 약 20 불 선에서 기기 구입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수신요금을 고려할 경우 해외 로밍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선불식 핸드폰 개통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백화점 등에 위치한 3 개 이동통신사 대리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카드식 선불 휴대전화는 한 번 구매해 두면 다음에 카드식 휴대폰이 통용되는 지역에 출장가서 카드 구입 후 활용할 수도 있다.

□ 전화카드(Hable mas) 이용방법

국제전화카드는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다음은 요금대비 통화가능시간이 비교적 길고 음질이 깨끗한 전화카드인 “Hable Mas”의 사용방법이다. 2000페소(약4000원)로 핸드폰 및 일반전화로 28분간 통화할 수 있다.

- ① 검은색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비밀번호 확인
- ② 사용 전화기 종류에 따라 번호입력
 - 공중전화: 800-364-300
 - 유선전화: 650-5115 / 핸드폰: 02-650-5115
- ③ 비밀번호입력
- ④ 수신자 전화번호 입력
 - 국제 전화시: 00+국가번호(한국 82)+지역번호+전화번호
 - 칠레 국내 전화시: 0+지역번호+전화번호

4) 국내통신

□ 유선통신

시장개방에 따라 국제전화요금이 인하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유선 통신은 CTC-Telefonica, Entel 등이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비싼 편이다. 통화료는 일반 전화를 사용할 경우, 1분에 15.72페소(인터넷은 6.71페소)이며, 저녁8시 이후에는 할인요금(일반 통화: 2.62페소, 인터넷: 1.12페소)이 적용된다. 공중 전화의 경우 가격은 1분에 100페소 (유선 전화의 경우) 혹은 200페소 (핸드폰의 경우)로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

□ 무선통신

칠레의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2006 년 말 기준으로 약 1,200 만 명을 넘어서 보급율이 70%를 넘는다. 주요 이동통신 업체로는 Movistar(43.4%), Entel PCS(37.8%), Claro(구 Smartcom PCS)(18.8%) 등이 있다. 선불(카드 충전식) 휴대폰과 요금 계약제 가입자 비율은 약 80:20 선이다.

출장자들도 손쉽게 선불식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5) 인터넷 사용환경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IT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거론되나, 인터넷 가격은 속도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다.

현지 최대업체인 Telefonica에서 제공하는 Speedy 2M(다운로드/업로드-2048kbps/256 kbps) 서비스의 경우 1년 약정 시 월정액이 39,990 페소(약 80불)이며, 기타 업체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서는 케이블TV, 유선 전화, 인터넷을 패키지로 묶어 단일 서비스 이용시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이러한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출장자의 인터넷 사용

대부분의 호텔에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므로 출장자가 개인 노트북을 휴대하고 있을 경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에서는 1일 미화 10불 내외의 인터넷 접속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아파트호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객실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편이다.

대학교 부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PC 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간당 사용료는 600 페소 수준이다.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프로그램이므로 PC 방의 컴퓨터로 조회 및 편집이 불가하며, 급하게 확인해야 하는 문서의 경우 한글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조회할 수는 있으나 편집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현지인들로 가득한 PC 방 이용이 선뜻 내키지 않을 경우 산티아고 시내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는 무선인터넷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카운터에 인터넷 사용을 요청하면 점원이 무선 인터넷 접속 Pin 번호가 적힌 카드를 건네준다.

단, 노트북에 무선 랜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최신 노트북에는 대부분 무선 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편이나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스타벅스에는 인터넷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다만, PC 방보다는 속도가 느리다는 흠이 있다.

라. 특사우편 가격 및 사용방법

한국으로 특사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용이 부담될 경우 수취인이 해당 서비스 업체의 계정(Número de Cuenta - 누메로 데 쿠엔타)를 갖고 있으면 업체에 해당 번호를 알려주고 착불로 발송할 수 있다.

제품이 서류인 경우에는 별도의 통관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상품을 발송할 경우 패킹리스트와 인보이스를 첨부해야 한다.

칠레에서 한국으로 1Kg의 특사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업체별 요금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업체명	요금	연락처
FEDEX	약 US\$ 64.61	800-36-3030(칠레 내에서)
DHL	\$53,072 (약 US\$100)	800-800-345(칠레 내에서)
TNT	\$38,258 (약 US\$ 72.18)	56-2-360-5100

주: 규격에 따라 최종가격 상이

사. 호텔/식당

1) 호 텔

산티아고 내 호텔은 하얏트, 셰라톤 등 세계적 체인호텔에서 취사가 가능한 아파트 형 호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호텔명	전화 +56+2	팩스 +56+2	홈페이지 및 이메일	요금(USD) (일반요율기준)	비고
Crowne Plaza	638 1042	633 6015	http://www.crownesantiago.cl/sales@crownesantiago.cl	150	조식 포함
Sheraton	233 5000	234 1729	www.sheraton.cl pablo.pesce@sheraton.com	265	조식 포함
Hyatt	218 1234	218 2513	www.hyatt.cl info@hyatt.cl	300	조식 포함
Marriott	426 2000	426 2001	http://marriott.com/reservation	229	조식 포함
Plaza del Bosque	498 1800	498 1801	/www.plazaelbosque.cl dep.reserva@plazaelbosque.cl	160	조식 포함
Hotel Tempo Rent - Apart hotel	231 1608	334 0374	www.temporent.cl reservas@temporent.cl	98	조식 포함 취사 가능

산티아고 내 호텔들의 경우 외국인이 요금을 미화로 지불할 경우 부가가치세(19%)를 면제해 주는 호텔들이 대부분으로 가급적 미화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권, 입국증명서 제시해야 함) 또한 호텔객실 전화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므로 국제 전화 이용하는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장기 체류 시에는 취사가 가능하며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호텔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의 요금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 최저가를 검색할 경우이므로 실제 요금은 위의 표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식당

산티아고 내에서는 칠레식 식당은 물론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 TGIF 등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을 비롯하며 중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인도, 아랍 등 세계 각국의 전통 식당들이 즐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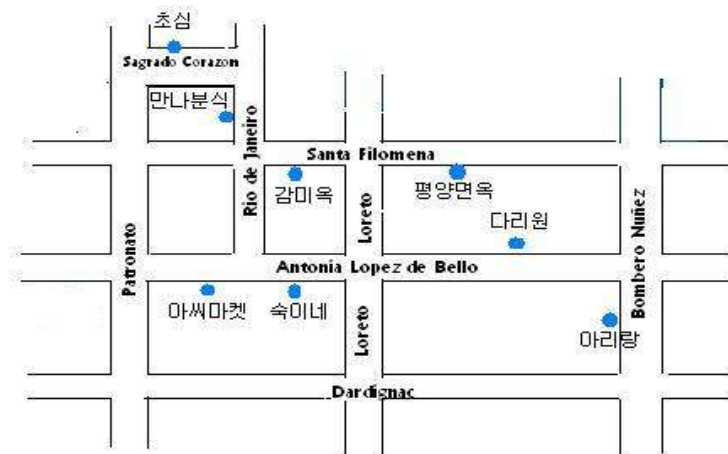
그러나, 식당 음식값은 국민소득(5천불)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며, 칠레인들의 음식은 우리 입맛에는 너무 짜거나 달아 안 맞는 경우가 많다. 한국식당의 경우 한인교포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명 마포초 지구)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식당 명	전화번호	주 소
아리랑(한식)	(56-2)732-4772	Bombero Nuñez 174
감미옥 (한식)	(56-2)735-5689	Sagrado Corazon 371
만 나(한식)	(56-2)735-4367	Rio de Janeiro 330
평양면옥(한식)	(56-2)735-7219	Santa Filomena 170
숙이네(한식)	(56-2)735-8693	Antonia Lopez de Bello 244
가 온(한식)	(56-2)242-0082	Manquehue Sur 674
다리원(중식)	(56-2)732-3150	Antonia Lopez de Bello 173
이찌방(일식)	(56-2)453-1793	Padre Hurtado 1521, Vitacura
두 리(일식)	(56-2)672-0915	Agustina 684
하나비(일식)	(56-2)243-0234	Vitacura 9875
다츠미(분식)	(56-2)732-5243	Antonia Lopez de Bello 231

대부분 한국식당은 오전 11시~3시, 7시~11시에 영업하며 일요일 점심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확인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김치찌개의 경우 가격대는 약 3,000 ~3,500 페소(약6~7불 선) 정도이다.

참고 - 마포초 지구에 위치한 한인식당 약도



□ 한국식품점

칠레 동포사회에는 한국식품가게가 2곳이 있어 식품구입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도착시 필요한 주요 식품은 가능한 많이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다.

- 아씨마켓: 777-5254
- 한국식품: 777-2694

칠레 전통 음식점

식당 명	주소	음식 종류/ 비고
Bávaro	Av. Bilbao 4188	빠리야다 (고기 모듬 구이), 돼지 뒷다리 구이
Los buenos Muchachos	Avda. Ricardo Cumming 1031,	빠리야다 칠레 민속 춤 공연 제공
Donde Augusto	Mercado Central, local 166	해물요리 전문
La Joya del Pacífico	Mercado Central, local 167	
Chilenazo	Avda. Apoquindo 6226	빠리야다 전문

고기를 주문할 경우 가격대는 음료를 포함하여 1인 당 약10,000페소(약 20불) 수준이며, 수산시장에 위치한 Donde Augusto, La Joya del Pacifico의 경우 음료와 해물탕 주문시 약 7~8,000페소(15~16불) 정도이다.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는 식당의 경우 1인당 평균 식사 가격이 약40~50불 선에 이른다.

□ 칠레의 주요 전통 음식



Parrillada (고기 모듬 구이)



Cazuela de Vacuno/Pollo (쇠고기/닭고기 탕, 우리나라의 삼계탕과 유사함)



Empanada (만두)



Pastel de Choclo (옥수수 케익)

아. 관공서 관행

칠레의 공무원, 경찰 등은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부정부패가 없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2006년 CPI 국가청렴도순위 세계 20위/163개국, *참고: 한국 42위). 그러나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관공서 관행 및 중남미 사람들 특유의 여유로움과 게으름 때문에 업무 진행 속도가 느릴 때가 많다. 그러나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뇌물 등을 줄 경우 부패 없는 칠레 공무원의 특성상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절대로 매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관공서에서는 원칙을 고집하고, 책임 업무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공무원에게 사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물 제공 등을 통해 부탁을 해서는 안되며 사후에 감사의 표시로 조그만 선물(포도주, 기념품 등)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자. 공휴일

2007년 칠레 공휴일

월/일	공휴일	
1/1	신정	Año Nuevo
4/6	성 금요일	Viernes Santo
4/7	성 토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날)	Sábado Santo
4/8	부활절	Pascua
5/1	노동절	Día del Trabajo
5/21	Iquique 해전 승리 기념일	Cambate Naval de Iquique (Glorias Navales)
7/2	성 베드로 & 성 바울 축일	San Pedro y San Pablo
7/16	Corpus Christi (그리스도 성체 축일)	Corpus Christi
8/15	성모승천일	Ascención de la Virgen
9/18	독립기념일	Fiestas Patrias(Día de la Independencia)
9/19	국군의 날	Fiestas Patrias(Día del Ejército)
10/15	콜롬버스 대륙 발견일	Día de la Raza
11/1	성인의 날	Todos los Santos
12/8	성모마리아 잉태일	Inmaculada Concepción
12/25	성탄절	Navidad
12/31	은행휴무	Feriado Bancario(*은행만 휴무)

1) 주요 연휴

- Semana Santa (고난주간/부활절): 4월 6일 - 4월 8일
- Fiestas Patrias (독립기념일 및 국군의 날): 9월 18일 - 9월 19일

2) 칠레 출장을 피해야 할 날

칠레는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이므로,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 국가들이 7~8 월에 휴가시즌을 보내듯이 여름철인 1~2 월에 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제활동 휴면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 월에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으므로 가급적 2 월에는 출장을 피해야 한다. 일부 레스토랑은 2 월 휴가시즌에 맞춰서 1 개월간 휴무 하기도 한다.

여름 휴가철 이외에 출장을 삼가야 할 시기는 부활절 연휴가 있는 4 월 3 주, 칠레 독립기념일/국군의 날 연휴가 있는 9 월 중순 등이다.

공식적인 부활절 연휴는 금, 토, 일로 이어지는 주말 3 일뿐이지만, 부활절을 전후로 개인 휴가를 사용하거나 기업 전체가 휴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출장을 피하되, 불가피하게 출장을 실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문 대상 기업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9 월 18 일은 칠레 독립기념일로, 크리스마스과 더불어 현지인들이 가장 성대하게 기념하는 축제일이며, 19 일 국군의 날까지 연휴로 이어지므로, 이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렵다.

독립기념일 연휴와 별개로 매년 9 월 11 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있으므로 9 월 중순 출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 9 월 11 일은 피노체트가 군사혁명으로 아옌데 정권을 몰락시킨 날로 대학생 및 반 피노체트 세력들은 매 년 이 날을 기념하여 피노체트 반대시위를 벌이는데, 이 기간 중에 반 피노체트 시위와 무관한 일부 불온세력들이 정치시위를 빙자하여 상가를 약탈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재산/인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9 월에 출장을 실시할 경우 9 월 10-11 일 사이는 반드시 피할 것을 권장한다.

3) 참고

칠레의 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카톨릭계 공휴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공휴일이 당해 화, 수, 목요일에 해당할 경우 그 공휴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로 옮겨서 연휴로 사용한다. 하지만, 카톨릭계 공휴일은 요일을 옮기지 않는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치안상황

치안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최근 들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소매치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치기에 주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중교통 내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지갑이나 귀중품의 경우 가방보다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소매치기는 주로 대중 교통수단 내, 시내 중심가, 호텔 로비 등 사람들로 혼잡한 지역에서 일어난다. 또한 술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이 10시 정도면 문을 닫고, 지하철도 10시 반 전후로 모든 운행을 종료 하므로 늦은 밤 혼자 거리를 돌아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범죄 우범 지역이며, 참고하면 유익하다.

- Santiago Centro (산티아고 중심가): Ahumada, Plaza de Armas, Puente 거리
- Estación Central (산티아고 중앙역과 산티아고 대학 역 사이의 지역)
- Pio Nono (Baquedano 역 주변, 유흥가)

2) 팁 관행

칠레에는 팁이 준 의무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10% 정도의 팁을 별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항, 호텔에서 포터 등에 팁을 주는 것이 관행이다 (가방당 1불 정도). 그러나 택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주지 않는다.

3) 식 수

현지인들의 경우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수돗물에 함유된 높은 석회 성분과 불순물 등의 이유로 차와 커피 등과 같이 끓인 물을 많이 마시며 생수 사용도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식수는 사먹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려면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식수 구입시 일반생수(아구아 신 가스, agua sin gas)와 탄산수(아구아 콘 가스, agua con gas)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카. 유용한 연락처

칠레 기관

(*전화번호 안내: 103)

소방서	132	마약신고	135
산악 구조대	136	해양 구조대	137
범죄 및 교통사고	133	산불	130
항공 구조대	138	공항	(56-2) 676 3249
앰블런스	131	기차안내	(56-2) 689 6070
긴급구조요청	(56-2) 391 4444	종합병원 응급실	Clinica Las Condes -211 4000 Clinica Alemana - 210 1111
콜택시(Las Condes)	(56-2) 211 4470		

한국 기관

기관 명	전화번호	주소
주 칠레 한국대사관	(56-2) 228 4214	Alcantara 74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56-2) 362 9991	Avda. 11 de Septiembre 1901, Piso 12, Providencia
한인회관	(56-2) 777 3540	Manzano 54, Of. 603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쇼핑장소

산티아고에는 대형 쇼핑몰이 9개나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대표적 쇼핑몰은 Parque Arauco, Alto Las Condes, Portal Dehesa 등이며 여기에는 Falabella, Almacenes Paris, Repley 등 유명 백화점, 각종 전문상점,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어 쇼핑하기에 편리하다.



Parque Arauco Shopping Center (www.parquearauco.cl)



Alto Las Condes(www.altolascondes.cl)

2) 특산품

칠레의 대표적 특산품으로는 'Lapislazuli' 라고 하는 반귀석을 이용한 각종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와 조각품을 들 수 있다. Lapislazuli는 전세계적으로 칠레와 아프카니스 탄에서만 생산되는 파란색의 반귀석으로 우리나라의 옥 수준으로 보면 된다.

또, 칠레산 장미씨 기름(Rosa mosqueta)으로 만든 각종 피부 미용 제품(장미 기름, 아이 크림 등) 및 달팽이 크림(Crema de Caracol)이 유명하다.

칠레산 와인은 우리나라 웰빙 현상과 함께 한국소비자들에게 매우 가까워진 상품으로 프랑스 산 와인에 비해 값이 상당히 저렴하고 맛도 좋은 것이 특징이다.

수공예품 등 기념품은 Pueblito Los Dominicos (www.pueblitolosdominicos.com), Centro Artesanal Santa Lucía (www.artesanosantalucia.cl), Barrio Bellavista Centro Artesanal 등에서 구입하면 좋으며, [Faba\(www.faba.cl\)](http://Faba(www.faba.cl))라는 기념품점은 비교적 상급의 제품들을 선별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파. 관광명소

1) 시내 관광명소

칠레 수도 산티아고는 매우 현대적인 건물과 서구적인 분위기를 갖춘 도시이다. 시내의 주요 볼거리는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는 구 시가지에 대부분 위치해 있어 도보로도 쉽게 관광할 수 있다. 주요 가 볼 만한 곳은 아르마스 광장, 산타루시아 언덕, 산티아고 박물관, 아우마다 (Ahumada)거리, 중앙시장, 미술관, Los dominicos 등이다.

아르마스 광장은 산티아고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으로, 스페인의 식민사슬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 하는 독립기념비와 산티아고 를 건설한 정복자 빠드로 데 발디비아의 동상이 있으며 건물이 밀집된 중심가에 위치한 녹지로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1769년 건립된 산티아고 박물관은 식민시대 최후의 영화를 결집한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콜로니얼 건축으로 식민지 시대부터 1925년까지 산티아고시의 변천을 볼 수 있다.

콜롬부스 이전 예술박물관은 1981년 개관하였으며 아즈텍, 마야, 잉카 등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 중남미 문명 유물 3,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1805년 건립된 동 박물관 건물 은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식민지시대에는 세관, 독립 직후에는 국립도서관으로 이용 되었다.

또, 교민들 사이에서 남산으로 불리는 산티아고시 중앙에 있는 '세로 산 크리스토팔 (Cerro San Cristobal)' 정상에 올라가 산티아고 시 전경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정상에는 성모 마리아 상과 노천성당이 있다. 교황이 산티아고시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이곳에서 미사를 본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주말에 가족 소풍 및 하이킹 인파로 가득 차는 곳이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을 오르는 방법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 등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시외관광명소

□ 비냐델마르 해변

산티아고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서쪽으로 달려가면 태평양연안에 비냐델마르(Vina del Mar)라고 불리는 해양도시가 있다. 유명 리조트 답게 고급 콘도, 아파트별장 등이 즐비하며 관광객을 위한 카지노, 골프장, 관광 식당가 등도 자리 잡고 있다.

해안을 따라 나타나는 풍경과 해변의 모래사장이 아름답지만 태평양과 직접 맞닿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세고 물이 차가워 수영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산책코스로는 좋다.

□ 발빠라이소 해변

발빠라이소는 비냐델마르 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대표시인 Pablo Neruda가 생전에 머물렀던 집을 구경할 수 있으며 특색 있는 이동수단인 아센소르(Acensor)를 타고 언덕에 올라가 도시 전경과 해변을 볼 수 있다.

□ 이슬라 네그라

이슬라 네그라는 네루다가 생전에 집필을 하던 집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네루다는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이슬라 네그라 등 3곳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슬라 네그라의 집이 가장 크고 유품들도 많이 있다. 수집품이었던 탓에 뱃머리, 모아이 석상, 색유리병 등 다양한 소장품을 볼 수 있다.

□ Valle nevado 스키장

칠레 스키장은 눈의 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Valle nevado 스키장은 산티아고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해발 3천 미터 고지에 위치해 있는 스키장이며, 만년설이 쌓여있는 최정상의 높이는 5,300미터이다. 스키장까지 자동차로 올라가는 경관이 이색적이다.

□ 와이너리

산티아고시 주변에는 포도 생산농원 및 와이너리가 많다.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은 Veramonte, Tarapaca, Concha y Toro 등으로 반나절 코스로 와이너리 견학, 포도주 시음, 포도주 구매 등을 할 수 있다.